

## AURI POLICY UPDATES

# 건축도시정책동향

Vol. 10  
2013. 11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3 10. 1~10. 31)

#### 건축문화 부문

-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공모 실시
- 숨은 디자인 보물을 찾아라!
- 충남도청사 '국내최고 녹색건축물' 우뚝
- 문화도시 · 문화마을 심포지엄 개최
- 스페인의 천재건축가 가우디와 함께하는 부산시
- 「G-Tower」 2013 인천시 건축상 대상 선정
-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 "생활을 편리하게 공간을 아름답게"
- 건축문화의 장래를 이끌 건축가 발굴
- "집" 주제 영화 21편 감상하세요!
-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31일 영암서 개막

#### 녹색 건축 · 도시 부문

- 안전하고 행복한 U-City를 만든다
- 사회복지시설 마당과 옥상에 "나눔숲" 만들어요
- 행복도시, 첨단 유시티 '착착'
- 2014년 건물 · 교통부문 온실가스 56만2천톤 감축 추진
- 녹색도시 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 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모두의 지혜를 모은다
-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공모 선정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원도심 행복찾기 '우리 마을은 내가 가꾼다'
- 디자인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 세미나 개최
- 대형 특수건물 DB 활용, 화재 · 누수 · 붕괴 등 실시간 건물위험평가, 대비 안 열려
- 서울시, 전국 최초 중간소음 교육교재 선보여
- 충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 인천시 건축정책 중장기 비전 · 전략 나왔다
- 2013년을 폐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원년으로  
폐가 없는 마을로 거듭나는 부산!
- 도시재생 · 농촌 리모델링 사업 위한 워크숍 개최
- 공간정보 산업,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 시민이 즐기는 행복한 도시농업
-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화 사업 미래정부상 수상

### 이슈와 연구동향 | 도시형태와 통행관련 영향(1990~2010) (Urban Form and Travel-related Impacts)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11월호 (통권 10호)**

• 발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3. 11. 25 • 발행인 : 제해성 • ISS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TEL. 031-478-9845 Email. kslee@auri.re.kr(이경신)

<b>건축도시분야</b>	<b>이달의 정책 Highlights</b>	<b>5</b>
<b>정책 Updates</b>	<b>정책 유형별 동향분석</b>	<b>6</b>
<hr/>		
<b>건축문화 부문</b>	광주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발표	8
	제2회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에 장운주 씨의 '나무그늘아래' 수상	8
	제22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선정	9
	2013 컬러풀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	9
	광주시, 도시재생투어 실시	10
	'충주 달천역' 국토도시디자인 대통령상 수상	11
	'울산하늘공원' 우수디자인(Good Design) 선정	11
	녹색건축의 모든 것 한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11
	대구시, '2013 도시대상' 3개 부문 수상 영예!	12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공모 실시	13
	숨은 디자인 보물을 찾아라!	13
	충남도청사 '국내 최고 녹색건축물' 우뚝	13
	2013 제8회 광주옥외광고 大賞展 개최	14
	제11회 대전시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14
	문화도시·문화마을 심포지엄 개최	15
	스페인의 천재건축가 가우디와 함께하는 부산시	15
	『G-Tower』 2013 인천시 건축상 대상 선정	16
	2013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가우디와 바르셀로나를 걷다' 특별전 개최	16
	대전시, '도시디자인포럼' 18일 개최	17
	2013 경남건축문화제 개최	17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18
	"생활을 편리하게 공간을 아름답게" 제3회 인천건축박람회 개최	18
	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탐방스쿨	19
	건축문화의 장래를 이끌 건축가 발굴	19
	"집" 주제 영화 21편 감상하세요!	20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31일 영암서 개막	20
<hr/>		
<b>녹색 건축 · 도시 부문</b>	안전하고 행복한 U-City를 만든다	21
	사회복지시설 마당과 옥상에 "나눔숲" 만들어요	21
	행복도시, 첨단 유시티 '착착'	22
	2014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 56만2천톤 감축 추진	22
	녹색도시 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23
	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모두의 지혜를 모은다	24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공모 선정	24

<b>국토환경디자인 부문</b>	원도심 행복찾기 '우리 마을은 내가 가꾼다'	25
	안전한 보행 환경으로 진화하는 인천 !	25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미래의 門' 열린다	26
	도시 재생·재활용 콘셉트 '선유도 이야기관' 6일 문 연다	26
	디자인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 세미나 개최	27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하늘정원 열린다!	28
	대형 특수건물 DB 활용, 화재·누수·붕괴 등 실시간 건물위험평가, 대비 안 열려	28
	서울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28
	서울시, 전국 최초 중간소음 교육교재 선보여	29
	충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30
	부산진역사 주변이 다시 밝아집니다!	30
	인천시 건축정책 중장기 비전·전략 나왔다	31
	2013년을 폐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원년으로	
	-폐가 없는 마을로 거듭나는 부산!	31
	공공디자인 및 100년 후 부산의 모습 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32
	도시재생·농촌 리모델링 사업 위한 워크숍 개최	32
	대전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시행	33
	공간정보 산업,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33
	시민이 즐기는 행복한 도시농업	34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화 사업 미래정부상 수상	35
	부산시, 부산 도시계획정보지 창간호 발간	35

<b>이슈와 연구동향 #6</b>	<b>도시형태와 통행관련 영향(1990-2010)</b>	<b>37</b>
	(Urban Form and Travel-related Impacts)	

#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 건축문화 부문

이번 달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각종 건축문화 행사가 활발했다.

부산과 경상남도에서는 각각 건축문화제를 개최,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광주에서는 올바른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적 디자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디자인 유관단체·시민 등 40여명이 참가하는 제2차 도시디자인 탐방스쿨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경관 조성사례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공모하였으며, 오는 12월에 발표와 시상할 예정이다.

## ▶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2차 유비쿼터스 종합계획(2014~2018)'을 최종 확정하고 1차 계획의 성과 확산 및 U-City 민간산업 활성화 중점 추진 등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 56만 2천톤을 감축하기로 하고,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설정(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부산시에서는 민간단체와 구·군 그린리더협의체, 업체,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회 그린스타트 부산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각 부문 그린리더들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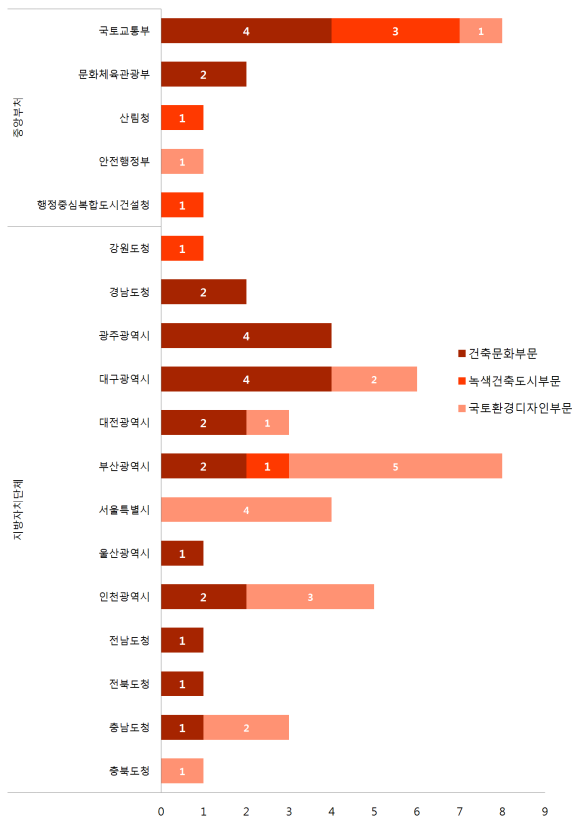
이번 달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대구시가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 '셉테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세미나에는 약 70여 명의 관련 전문가, 교수, 경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분야의 셉테드 기법 도입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예방 교육교재인 '층간소음 걱정 그만'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교육교재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층간소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일, 충청남도에서는 건축관련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충청남도는 건축관련 기본계획을 통해 충청남도의 특색 있는 건축물 만들기과 녹색건축물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2013년도 10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3건의 발표자료 중 중앙부처에서 13건(24.5%), 지방자치단체에서 40건(75.5%)의 주요사업 및 시책을 발표한 것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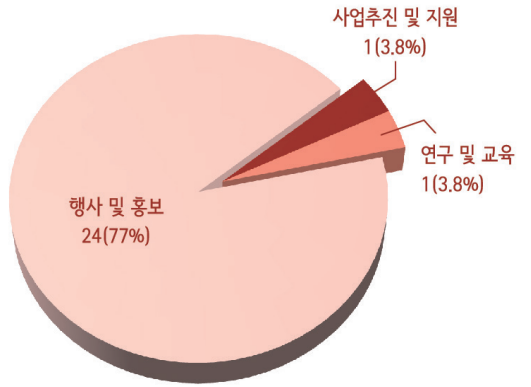


중앙부처에서는 전체 13건 중 「건축문화 부문」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발표된 보도자료가 6건(46.2%)으로 국토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중점 발표하였으며, ‘녹색건축의 모든 것 한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 실시’,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주요행사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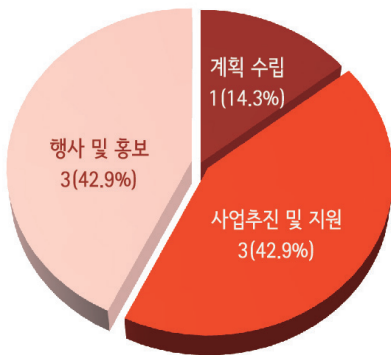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는 ‘2013부산건축문화제 개최’, ‘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탐방스쿨 실시’, ‘전북, 건축문화의 장래를 이끄는 건축가 발굴’ 등 1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40건의 주요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발표한 부문은 「건축문화 부문」으로 20건(50%)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한 것으로 정리된다.

주관부처		건축 문화 부문	녹색 건축 도시 부문	국토 환경 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 부처	국토교통부	4(7.5%)	3(5.7%)	1(1.9%)	8(15.1%)
	문화체육관광부	2(3.8%)	—	—	2(3.8%)
	산림청	—	1(1.9%)	—	1(1.9%)
	안전행정부	—	—	1(1.9%)	1(1.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1(1.9%)	—	1(1.9%)
합계 (중앙부처)		6(11.3%)	5(9.4%)	2(3.8%)	13(24.5%)
지방 자치 단체	강원도청	—	1(1.9%)	—	1(1.9%)
	경남도청	2(3.8%)	—	—	2(3.8%)
	광주광역시	4(7.5%)	—	—	4(7.5%)
	대구광역시	4(7.5%)	—	2(3.8%)	6(11.3%)
	대전광역시	2(3.8%)	—	1(1.9%)	3(5.7%)
	부산광역시	2(3.8%)	1(1.9%)	5(9.4%)	8(15.1%)
	서울특별시	—	—	4(7.5%)	4(7.5%)
	울산광역시	1(1.9%)	—	—	1(1.9%)
	인천광역시	2(3.8%)	—	3(5.7%)	5(9.4%)
	전남도청	1(1.9%)	—	—	1(1.9%)
	전북도청	1(1.9%)	—	—	1(1.9%)
	충남도청	1(1.9%)	—	2(3.8%)	3(5.7%)
	충북도청	—	—	1(1.9%)	1(1.9%)
	합계 (지방자치단체)		20(37.7%)	2(3.8%)	18(34%)
총 계		26(49.1%)	7(13.2%)	20(37.7%)	5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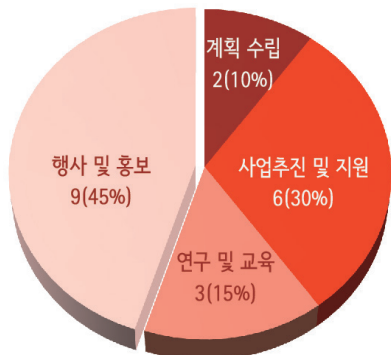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 건축문화부문



■ 녹색건축도시부문



■ 국토환경디자인부문

각 부분별 세부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전체 53건 중 26건(49.1%)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고 그 중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1건(1.9%),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1건(1.9%),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24건(45.3%)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전체 53건 중 7건(13.2%)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계획 수립' 분야에서 1건(1.9%),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3건(5.7%),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3건(5.7%)의 사업 및 시책들이 발표되었고, 20건(37.7%)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계획 수립' 분야에서 2건(2.8%),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6건(11.3%),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3건(5.7%),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9건(17%)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10월 한 달 동안 건축·도시관련 정책사업이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분야는 '행사 및 홍보' 분야로 36건(68%)으로 정리되며, 그 다음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의 정책사업이 10건(18.9%), '연구 및 교육' 분야의 정책사업이 4건(7.5%), '계획 수립' 분야의 정책사업이 3건(5.7%) 발표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1(1.9%)	2(3.8%)	3(5.7%)
법·제도 개선	-	-	-	-
사업추진 및 지원	1(1.9%)	3(5.7%)	6(11.3%)	10(18.9%)
시스템 구축	-	-	-	-
연구 및 교육	1(1.9%)	-	3(5.7%)	4(7.5%)
행사 및 홍보	24(45.3%)	3(5.7%)	9(17%)	36(68%)
총 합계	26(49.1%)	7(13.2%)	20(37.7%)	53(100%)

■ 부문별 세부분야

## 광주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발표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 등 3곳 선정

2013.10.02.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찾아 시상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민간 부문에 '쌍촌동 다솜카페'와 공공 부문에 '광주시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을 선정했다. 주거 부문에는 '수완지구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정원'을 선정했다. 당선된 건축주에게는 광주시장상이 수여되고, 시설물에는 기념동패가 부착된다.

민간 부문의 '쌍촌동 다솜카페' 건물은 주택가 도로변 2층 건물로, 접한 도로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과 단절된 높은 회색 담장을 과감히 허물어서 주변과 소통하고 있으며,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은 기존 지형지물을 이용한 건축으로, 옥상에 산책로와 쉼터, 조경을 갖추고, 가로변 어디서나 진입할 수 있어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는 넓은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 부문의 '수완지구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정원'은 입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쉼터, 조형물과 수목 등이 조화롭게 배치돼 그 속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연출하고, 동(棟)을 연결하는 물길은 주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여유로움으로 높이 평가됐다.

이번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꿈나무 사회복지관

## 제2회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에 장운주 씨의 '나무그늘아래' 수상

출품작은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  
10월 11일부터 13일 까지 전시

경남도는 '제2회 경상남도 옥외광고 대상전' 공모 결과 창작 광고물 모형 부문 장순준 씨의 '나무그늘아래'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전에는 총 99 작품이 접수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3점, 은상 3점, 동상 3점, 입선 14점 등 총 20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금상은 창작광고물 모형 부문에서 한영운 씨의 '건축설계디자인 지움'이, 창작광고물 디자인 부문 한국폴리텍Ⅶ대학 이동훈 씨의 'Cat HouseW'가, 기설치 광고물 부문에서 이철용 씨의 '休&樂'이 각각 선정되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은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도가 주최하고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해에 올해 2회째로 수상작을 포함한 출품작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창원시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 전시되며, 수상작은 '2013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 출품된다.

한편, 지난 제1회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 수상작들은 '2012년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서 금상, 동상, 장려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13.10.04.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건축과

## 제22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선정

마들렌상점·강동지역 노인복지관 금상 수상

대구는 '제22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금상으로 일반분야 마들렌상점, 공공분야 강동지역 노인복지관을 선정했다.

'대구광역시 건축상'은 일반, 공공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각 구·군별로 추천된 일반부분 15개 작품, 공공부분 8개 작품 등 총 23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나 심사위원의 공감을 얻는 작품이 없어서 대상은 선정되지 못했다.

금상은 일반분야 수성구 성동 마들렌상점과 공공분야 신기동 강동지역 노인복지관, 은상에는 일반분야 달서구 송현동 PK빌딩, 공공분야 중구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 동상에는 일반분야 남구 대명동 영남이공대학 창업보육센터, 공공분야 중구 남산동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등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일반분야 금상인 마들렌상점은 균질한 육면체 형태의 가구 판매점을 모더니즘적 공간 구성과 송판결의 노출콘크리트 재질감으로 마무리해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부 공간에 매달려 있는 계단 코어가 시야를 굴절시키며 다양성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공분야 금상인 강동지역 복지복지관은 대지 형태에 맞춰 동서로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 동선에 따라 조금씩 굴절되는 매스는 변화감을 준다. 아울러 취미실 쪽의 내부 정원과 경사로는 주변 경관의 장면과 내부 자연을 동시에 즐기게 해주는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1989년부터 내면 개최된 건축상 시상은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 장려를 통해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분야 금상 '마들렌상점'

2013.10.04.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 2013 컬러풀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

공공디자인 22점, 도시브랜드 7점, 업사이클링 20점

대구는 '끌림이 있는 묘한 매력을 가진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발하고 재미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2013년 컬러풀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공공디자인 공모 부분 대상 정승호 외 2인, 도시브랜드 부분 대상 황록연 외 2인, 업사이클링 부분 대상 김혜미 외 1인 등 총 49점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 학생부 경기대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일반부는 '공공디자인 부분', '도시브랜드 부분', '업사이클링 부분'으로 나눠 진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업사이클링 부문은 다년간 사용하지 않은 83타워(구 우방타워)의 굴뚝을 이용한 공중 산책길로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공간 활용과 외형 디자인을 가미하는 것으로써 대구의 명소로 재탄생하고자 했다.

이번 공모전의 당선작은 '2013 디자인 대구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오픈전시장에 전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및 활용 가능한 작품은 향후 작품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심화시켜 실제로 현장에 설치하고 출품자의 이름을 표시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여 줄 계획이다.



■ 공공디자인 부분 대상



■ 도시브랜드 부분 대상



■ 업사이클링 부분 대상

2013.10.04.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본부

## 광주시, 도시재생투어 실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창조적 모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기회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오는 26일 군산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돌아보는 올 하반기 도시재생투어를 실시한다.

(사)광주건축단체인협회의 주관으로 선착순 120명을 모집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접수하며, 일반시민, 건축사, 교수 및 학생, 관계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투어는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문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군산지역에서 '근대 역사문화거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군산지역 옛 군산세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군산 근대미술관, 군산 근대건축관, 고우당(근대역사체험공간),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 등을 둘러보고 도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 사례를 체험할 계획이다.

2013.10.4.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 ‘충주 달천역’ 국토도시디자인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 시상식·전시회 및 국제포럼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월 7일 「2013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이하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우리나라 국토디자인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국토의 품격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올해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주제가 있는 국토, 볼거리가 있는 도시”를 공모주제로 공공 공간, 기반시설, 도시 및 단지, 해외건설(국내 업체 시공 사업) 등 4개의 일반 부문과 특별 부문(올해 주제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총 13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대통령상(1점)에는 충북 충주시의 ‘달천역 문화디자인’이, 국무총리상(1점)에는 경기 용인시의 ‘용인아르피아’ 등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상(5점)에는 ‘경북 영주시-역사문화 마당과 함께하는 참사랑 주민복지센터(도시단지)’, ‘서울 관악구-관악산 무장애 숲길(공공공간)’, ‘부산광역시 본청-시 경계표시판 디자인 개선사업(기반시설)’, ‘쌍용건설-싱가포르 W호텔 사업(해외건설)’ 및 ‘부산 해운대구-간판이 아름다운 구남로 조성사업(특별부문)’등이 각각 선정되었다.



■ 대통령상-충주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2013.10.7.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울산하늘공원’ 우수디자인(Good Design) 선정

울산시, 지난 2009년 부터 5년 연속 수상 영광 안아

‘울산하늘공원’이 2013 우수디자인(Good Design)으로 선정되어 우수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2013년 우수디자인’(Good Design)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울산시 등 751개 기관·업체가 출품한 1,703점에 대해 디자인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30점을 선정하였다.

울산하늘공원은 입지를 기피하는 종합장사시설이지만 남비현상을 극복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를 통해 건립이 추진된 시설이다. 또한, 주변의 산과 계곡 등 자연경관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건축디자인에 3차 연소방식의 화장로가 설치되어 무색·무취·무공해의 친환경 시설이며,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원화된 시설로 조성됐다.

2013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 630점 중 울산하늘공원을 포함한 수상작 82점은 미국 국제우수디자인상(IDEA) 등 전 세계 11개국 360여 개의 혁신적인 우수디자인 상품들과 함께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월드베스트디자인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2013.10.08.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 녹색건축의 모든 것 한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녹색건축 관련 전시·시상 등 관련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COEX에서 개최

녹색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작품, 최신 녹색건축 기술, 다양한 녹색건축 제품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3회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가 10.23(수)~10.26(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행복이 가득한 녹색건축! (Green Happy

Architecture!)”이라는 주제로 전시와 세미나 등으로 구성하였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열린 전시행사에는 녹색건축대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국민 참여형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건축디자인 등 녹색건축 관련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전시와 더불어 건축산업대전에서 다양한 녹색건축 제품을 전시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하였다. 전시 기간 중 25일 오전에는 시상식(녹색건축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작 등)과 더불어 “영국의 녹색건축 정책과 현황”에 대하여 영국 BRE<sup>1</sup> Global CEO인 Richard Hardy 박사가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국내 녹색건축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도 열렸다. 오후에는 6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녹색건축 관련 정책·제도,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사례, 녹색요기술, 녹색건축 체험사례 등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금년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는 작년까지 개별적으로 분산 개최되었던 친환경건축 공모전(제6회), 녹색건축대전(제2회), 한국건축산업대전(제8회)과 금년에 새롭게 시작된 국민 참여형 그린 리모델링 공모전(제1회) 등 녹색건축 관련 행사를 녹색건축 한마당으로 통합하여, 한자리에서 녹색건축 전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녹색건축한마당 세미나는 국민들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 전시행사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를 계기로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녹색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10.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대구시, ‘2013 도시대상’ 3개 부문 수상 영예!

남구 국무총리 상, 달성군 장관상, 수성구 특별상 수상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이 주관하는 ‘2013 도시대상’에서 대구시 남구와 달성군이 각각 국무총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수성구는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시대상’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색 있는 도시조성을 유도하고 시민들을 위한 도시행정 및 건전한 도시경영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 동안 도시 공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울여 온 성과를 그 전년도 성과와 비교해 그 증가 수준을 평가한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남구청은 현재 추진 중인 웰빙(참살이) 먹거리타운 조성사업과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을 ‘좋은 이웃 협의회’, ‘좋은 이웃 자문단’,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등과의 협조를 통해 추진하여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달성군은 마비정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외된 작은 오지마을에 많은 관광객을 유도해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등 마을 만들기 선도 사례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특별상을 수상한 수성구청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사업 및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사업 운영 등 삶의 활력을 더하는 기반조성과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돼 도시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구·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市)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3.10.10.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 녹색건축을 포함하여 영국의 건축 연구를 총괄하며, 세계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제도를 개발

##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 실시

우수 경관 조성사례 발굴, 주민 참여 유도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지역의 경관개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 향상에 기여한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역사문화경관·농산어촌경관·자연경관·공공디자인의 5개 경관 유형과 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5개 경관유형별로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이 깊은 '마을경관 만들기 활동주체'를 올해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경관대상 홈페이지(<http://www.k-scape.or.kr>)를 통해 이루어지며,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경관 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10.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숨은 디자인 보물을 찾아라!

2013 디자인 대구 포럼 개최

대구는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10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2013 디자인 대구 포럼'을 개최한다.

2013 디자인 대구 포럼은 '숨은 디자인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거대 담론을 다루는 주제에서 벗어나 디자인적 잠재가치를 지닌 대상을 찾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험적인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도시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실험적인 생각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기회 마련과, 이를 통해 디자인 잠재적 가치를 지닌 대상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지적·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숨은 디자인 보물찾기'는 내년부터 분기 1회 정도 개최해 도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3.1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 충남도청사 '국내 최고 녹색건축물' 우뚝

본청 및 의회 청사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작 선정

충남도청사가 국내 최고 녹색건축물로 우뚝 섰다. 도는 '충청남도 본청 및 의회 청사(이하 도청사)'가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수상 건축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한 녹색건축대전은 국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거쳤으며, 대상에 선정된 도청사 외에도 3개 건축물이 최우수상을, 7개 건축물은 우수상을 받았다.

도청사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을 통해 공공청사 중에는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고, 청사 주변 공원에서 백재물, 건물 중앙 정원, 옥상조경 등으로 녹색 벨트를 형성하는,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청사는 우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 면적 비율을 50%로 최적화하고, 외부 창문은 단열 성능이 뛰어난 로이복층 유리를 설치했다. 기계 부문에서는 건물 외부 공기 예냉·예열을 위

한 쿨링 튜브, 절수형 위생기구, 열교환기, 중수 및 우수설비 등을 설치했으며, 전기부문은 고효율 아물퍼스 변압기, LED 조명 설비, 패틴전력제어 등을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웅비하는 언덕(Great Hill)’을 형상화한 4동의 건물은 용봉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햇빛이 청사 광장까지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립했으며, 백제물을 가로지르는 물길은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있다. 도청사 각 건물 옥상 30% 이상의 면적에 적용한 옥상녹화는 최상층에 누적되는 태양열을 반사하거나 흡수토록 하고, 건물 내부 단열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건물이 지어지기 전 생태공간을 복원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청사는 자연과 문화, 역사 등을 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반영한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건축물로, 이번 수상은 도청사의 탁월한 친환경성을 공인받은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 녹색건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청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충청남도 도 본청 및 의회청사

2013.10.14.  
충청남도 신도시개발지원과

## 2013 제8회 광주옥외광고 大賞展 개최

‘성공적인 국제행사 = 시작은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주최하고 (사)광주옥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2013 제8회 광주옥외광고 대상전이 18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 2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광주옥외광고 대상전은 ‘성공적인 국제행사 = 시작은 아름다운 옥외광고물’이라는 주제로 옥외광고인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광남일보,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디자인센터가 후원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교생들의 제6회 동심에서 바라본 예쁜 간판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40점과 대학생,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수상작, 옥외광고인들의 아름다운 창작 간판 수상작 50여점이 타 시도 우수작품과 함께 전시되며, 옥외광고업 관련 신소재와 첨단 시스템 장비도 홍보한다. 이와 함께, 특별홍보관에서는 광주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과 관련 법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홍보한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가훈을 예쁜 글씨로 써주기, 한지공예, 수공예, 리폼공예, 목공예 체험 및 판매관, 소프트웨어 특별할인판매, 친환경 나무간판 전시판매, 경품 추첨행사 등 이벤트를 운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8회 광주옥외광고대상전은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 응모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고, 이벤트 부스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신기술 간판 소재 등의 체험을 통하여 시민 축제의 장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10.14.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 제11회 대전시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영예의 금상 창작모형부문 형재정,  
창작디자인부문 김희향, 신은하 수상

대전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5층)에서 ‘제11회 2013 대전시 옥외광고 대상전’을 개최했다. 옥외광고 대상전은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파 도시에 잘 어울리는 품격 있는 간판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전시 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를 병행한다.

금년 옥외광고 대상전에 출품한 작품은 총 38점 (창작모형부문 18점, 창작디자인부문 20점)으로, 지난 9월 26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창작모형부문에서는 광고기획 '팀'대표 형재정의 '커피마루 BEN' △창작디자인부문은 혜천대학교 김희향, 신은하의 '삼천리자전거 전국대리점 사인개선 방안'이 영예의 금상을 수상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옥외광고 대상전을 통해 대전의 옥외광고문화의 발전모습과 방향 등을 제시하여 도시의 품격에 걸맞는 옥외광고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10월 14일 표창 장면

2013.10.15.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심포지엄에서는 사업개요 및 인구역역 결과 발표에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적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문화도시·문화마을 포럼의 기획위원인 향순우바인건축사무소 대표,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문화도시·문화마을의 공간구축과 프로그램 기획 및 브랜딩'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서 이승택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대표, 전고필 서울시 청년 허브 청년사업팀장, 오형은 (주)지역 활성화 센터 대표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3월 서울에서 '문화도시·문화마을 포럼'을 발족(포럼위원 22명 위촉)하고 전주전통문화도시(4월), 경주역사문화도시(5월),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6월)에서 각각 '2013 문화도시란?', '문화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구조', '문화도시의 실현 가능성'이란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온 바 있다.

이번 문화도시·문화마을 심포지엄은 그간의 포럼 성과를 바탕으로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10.16.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도시·문화마을 심포지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10월 '문화도시·문화마을 심포지엄'을 문화의 달 행사와 함께 문화역 서울 284 중앙홀(구 서울역사)에서 개최했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은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6개월간 추진된 포럼에서의 성과를 종합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스페인의 천재건축가 가우디와 함께하는 부산시

### 2013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최

부산시는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허남식 이하 건축문화제)와 공동으로 10월 '2013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개최했다.

2013 건축문화제(2012-2013)는 '건·축·복·지(建·築·福·祉)-나눔과 살림'이라는 대 주제로 도시·건축을 매개로 나눔을 실천하고 쇠퇴하는 도시의 되살림을 목표로 '건축을 통한 복지의 실천'을 지향한다.

올해 건축문화제는 지난 2년간의 사업성과를 내실 있게 되돌

아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학술·강연, 시민참여 건축문화이벤트 등이 마련되어 있어 행사 참여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시·건축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10.16.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

### 『G-Tower』 2013 인천시 건축상 대상 선정

21개 작품이 응모한 결과 대상 1개 작품 및 우수상 3개 작품 선정

인천시(시장 : 송영길)에서는 선진수준의 건축문화를 유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기여한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에게 『인천광역시 건축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지난 10월 15일 대학교수 및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013 인천광역시 건축상”을 심사했다.

『2013 인천광역시 건축상 공모』를 통해 모두 21개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심사결과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G-Tower』가 대상 작품으로 선정됐다. 우수 작품으로는 공공부문에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아라뱃길 통합센터&인천여객터미널』, 주거 부문에는 『논현 587-15 주택』, 일반부문에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동아알루미늄 공장』이 선정됐다.

『G-Tower』는 송도, 영종, 청라를 아우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청사로서, 6개 층에 달하는 4개의 아트리움과 25m 깊이 역경사의 하늘정원은 과감하고 독창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타워동 입면에서 보여주는 사진의 조형성은 간결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일반부문에 우수상으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동아알루미늄 공장이 선정된 것은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건축주, 건축사, 조각가가 함께 참여하여, 기존 공장의 이미지를 벗어나 건축물과 기계설비 예술작품이 한 곳에서 어우러져 마치 조그마한 전시관으로 착각될 정도로 공장에 새롭게 접근하였으며, 친환경적인 감각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시는 대상작품을 비롯한 선정 작품의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에 대해 11월 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

는 “2013 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대상 수상작 : G-Tower ■ 우수상 수상작 : 동아알루미늄공장

2013.10.1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 2013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가우디와 바르셀로나를 걷다’ 특별전 개최

부산-바르셀로나 자매도시 30주년 기념, 양 도시 비교 및  
천재건축가 가우디 주요작품 소개

부산시와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2013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특별전 ‘가우디와 바르셀로나를 걷다’를 10월 17일부터 27일(11일간)까지 KNN월석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부산과 바르셀로나의 자매도시 3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으며 전시회, 기념심포지엄, 소강연회를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바르셀로나와 그 도시를 빛나게 한 천재 건축가 가우디를 소개하며, 크게 ‘바르셀로나 도시’와 ‘건축가 가우디’ 두 개의 파트로 나뉜다.

먼저, 도시파트는 도입부에서 부산과 바르셀로나의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도시역사타임라인 비교하여 두 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어 바르셀로나의 도시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인 세르다(Cerda)의 도시계획과 이러한 무대 위에 탄생한 가우디를 포함한 모데르니즘(Modernismo, 현대주의)

의 건축가들을 소개한다. 마지막 부분은 랜드마크, 교역의 도시, 도시재생 그리고 퍼블릭 스페이스 디자인 섹션으로 구분하여 바르셀로나 시의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줌으로써 바르셀로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시회 이외에도 바르셀로나와 가우디에 관한 학술강연행사인 기념심포지엄 및 소강연회도 마련되어있다. 10월 23일 부산디자인센터 6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될 ‘기념심포지엄’에서는 마리아 마린 포르네 교수(가우디연구재단)와 아멜리아 마테오스(바르셀로나시 도시계획부)가 강연자로 나서 ‘가우디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 : 연구와 혁신’, ‘22@ 혁신지구 사례 중심의 바르셀로나의 도시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청중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다. 특히 22@은 과거 공단지역을 퍼블릭 스페이스로 재생한 지역으로 부산의 도시재생 정책에 참고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포지엄의 분위기가 다소 부담스럽다면 전시장 내 강연장에서 진행되는 소강연회를 찾으면 된다. 소강연회는 전시 기간 중 금·토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바르셀로나 구도심의 진화(소병식)’, ‘바르셀로나 도시전략(김지혜)’, ‘가우디의 설계이론(이병기)’, ‘바르셀로나 퍼블릭스페이스(송우섭)’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연자들은 모두 바르셀로나에서 수년간 건축을 공부하거나 실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로 청중들과 격 없는 대화 형식의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전시기간 동안에는 가우디가 사용한 ‘트렌카디스(trencadis, 깨진 타일 조각을 이용한 모자이크 장식)’기법을 주제로 어린이 건축워크숍도 진행된다. 가우디의 생애와 그의 작품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고 구엘공원의 벤치와 부산의 상징 갈매기를 모자이크로 꾸며보는 체험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주중에는 유치원생들을, 주말에는 초동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한 후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전 개막에 이어 10월 22일 ‘2013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공식개막을 시작으로 영화의 전당, 부산디자인센터, 경남정보대 센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2013.10.17.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

## 대전시, ‘도시디자인포럼’ 18일 개최

빛의 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에너지 낭비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대전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전문가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도시디자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빛으로 도시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경관조명에 대해 생소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세미나 형식의 쉽고 편안한 주제 강연 후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서 이진숙 충남대 교수는 야간의 도시형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도시경관조명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하며, 이연소 (주)유엘피 빛공학연구소장은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 용역을 수행한 실무자로 해외 및 타시도 우수사례와 문제점 등을 소개하고 야간경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2011년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시 전체 빛 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제시, 현재 둔산대공원과 유성 온천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10.18.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 2013 경남건축문화제 개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공생(共生, symbiosis) :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제로

건축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도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경남 건축의 정체성을 정립하며 건축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3 경남건축문화제’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생(共生, symbiosis) :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제로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경남도와 (사)경남건축문화연합 주최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문화제는 제10회 경남건축대상제, 제23회 경남건축대전, 제8회 집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건축사 및 교수 초대전, 해외 우수 건축 작품 전시, 도내 우수 주택 전시, 도

시 재생 사례전 등의 행사를 통해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건축작품의 감상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학술행사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경남 도시 재생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경관 건축과 도시의 공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부대 행사로 도민들이 직접 건축모형 체험을 통해 쉽게 건축을 쉽게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경남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의 경연장이 될 건축올림피아드 대회와 유명 건축가 르코르뷔지에의 집의 구상부터 설계과정 완공까지의 다규형식 영화 등 2편의 건축영화도 준비되어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문화제는 그동안 전문분야로 인식되어 온 건축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의 장 이므로 도민들의 관람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2013.10.28.  
경상남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11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디자인이 있는 행복한 삶' 주제로 열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철)이 주관하는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이 11월 1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은 '디자인이 있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일상 속 문화적 삶과 국민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다.

제1부에서는 '디자인과 문화'를 주제로 대니 용 홍콩현대문화원 의장, 황순우 바인건축사사무소 대표, 고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제하고, 제2부에서는 '디자인과 삶'을 주제로 수지 매튜스 시드니 시의회 비즈니스·안전 담당관, 벤자민 모저 스위스 시니어 디자인 팩토리 대표, 안연정 문화로놀이 짱 대표가 발제하며 이후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디자인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상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디자인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문화적 삶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려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013년 10월 30일(수)까지 전자우편(symposium@kcdf.kr)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3.10.29.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생활을 편리하게 공간을 아름답게” 제3회 인천건축박람회 개최

10.31~11.3 송도컨벤시아, 친환경건축자재, 건설장비·기술 등 전시

인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인천시 건축사회 등이 주관하는 “제3회 인천건축박람회”가 10. 31 ~ 11. 3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2Hall)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보급과 미래 주거 공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건축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 소재 기업인들에게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생활은 편리하게 공간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관련 기업 100개사가 200개의 부스를 설치해 인테리어, 생활가전, 바닥재, 창호재, 조명, 냉난방 기기, 조명설비 등 다양한 친환경 건축자재는 물론, 건설장비, 건설신기술, 신공법 등 건설분야 품목도 함께 전시하고 전원주택 특별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 성장을 향한 가축친화환경 조성, 신기술설명회 등의 세미나를 통해 친환경적 건축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DIY 가구 만들기 체험행사, 조립식 주택 집짓기 세미나 등을 선보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3.10.3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 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탐방스쿨

1박2일 일정으로 디자인 유관단체·시민 등 참가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인본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해 디자인 유관단체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등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2013 도시디자인 탐방스쿨'을 실시한다.

광주시에 추진하는 도시디자인 탐방스쿨은 지난 5월 실시한 탐방스쿨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호응으로 2차 탐방스쿨을 계획했으며, 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이 공공디자인과 연관돼 있음을 인식하고, 선진도시 탐방을 통해 올바른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디자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들의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청암민속박물관, 장흥아트파크, 송암스페이스센터를 방문하고, 둘째 날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남이섬을 방문하여 불모의 땅 이였던 남이섬을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자원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를 듣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소홀하지 않고, 눈을 돌려 다시 쓰고, 새롭게 만들어 낸 남이섬의 디자인 정신을 체험한다.

이번 도시디자인 탐방스쿨을 통해 선진 디자인 도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인본디자인도시-광주'를 구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3.10.30.  
광주광역시 대변인실

## 건축문화의 장래를 이끌 건축가 발굴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선정

전라북도가 건축문화의 발전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추진한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부분별 영예의 대상은 사용승인 부문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옥(이길환, ㈜길건축사사무소)'이, 계획작품부문 학생부에는 'Social pixel(안재성,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사진 부문은 '인공바다(남궁보배, 전주대학교)'가 각각 차지하였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은 올해 14회로서 "경계 그리고 어울림"이라는 주제 아래 4개의 분야(계획작품부문 학생부와 일반부, 사용승인부문, 건축 사진 부문)로 응모작품을 접수한 결과 총 90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각 부분별 수상작 19작품을 선정하였다.

사용승인 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한국농어촌공사 사옥」은 연면적 9,136.66㎡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서 투명한 경영과 열린 행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건축기술과 재료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으며 또한, 친환경적이며 열린 공간을 통해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계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계획작품 부문 학생부 대상작 「Social pixel」은 전주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건축물에 반영하는 등 학생작품에서 시도될 수 있는 실험적인 측면과 문화, 상업에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시설을 계획으로써 접근성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의도했다는 점이 돋보이는 계획안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이 밖에도 사용승인 부문별 금상 각 1점과 은상 각 1점, 계획작품부문 학생부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2점 등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19개 작품의 수상작과 공모전에 응한 90작품 포함, 일본·중국건축가, 도내 출향건축가 등 작품 190여 점을 도청 기획전실과 로비에서 전시한다.

도청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저변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젊은 건축인 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도내 건축전문가와 건축 관련 5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사용승인-한국농어촌공사 사옥 ■ 계획작품 학생 - Social pixel

2013.10.31.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 “집” 주제 영화 21편 감상하세요!

제5회 서울건축영화제 31일 개막...건축과 영화의 만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는 제 5회 서울 국제건축영화제를 오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6일간 이화여대 ECC 아트 하우스 모모에서 개최한다.

이 영화제는 국·내외에서 제작한 건축 관련 영화의 상영을 통해 국민에게 건축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09년부터 매년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는 일반 국민에게 정감이 가는 “집(House)”이란 주제에 맞는 재미있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21개 영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 당일 개막작은 게리 허스트 윗(Gary Hustwit)이 감독한 어버나이즈드(Urbanized)로,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축 등 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3.10.3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31일 영암서 개막

11월 5일까지 ‘한옥의 현대화’ 주제로 기능대회·구들장 체험 등 다채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한옥의 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대한민국 한옥 건축박람회’가 31일 영암 군서면 동구림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옥건축박람회는 ‘한옥의 현대화’라는 주제 아래 박람회 주제관, 한옥 하우스마켓,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 한옥 사진촬영대회를 비롯해 한옥 짓기 체험과 한옥 구들장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11월 5일까지 6일간 펼쳐진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한옥건축포럼이 열린다. 개막일인 31일 오후에는 김홍식 명지대 명예교수가 ‘한옥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11월 1일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한옥’을 주제로 한옥포럼이 개최되는 등 11월 3일까지 매일 강연이 열린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문화해설가와 함께 구림한옥마을을 탐방하는 구림마을 자전거투어가 진행되고 매일 국악콘서트 등 공연이 열리는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한편 전남도와 영암군은 한옥건축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반드시 봐야 할 5대 관람 포인트로 박람회 주제관, 한옥 기능경기대회, 구림마을 자전거 투어, 한옥 짓기 체험, 구들장 체험으로 정하고 관람객을 맞고 있다.

2013.10.31.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 안전하고 행복한 U-City를 만든다

##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위원장 : 총리)에서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2018)」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을 융복합하여 교통, 환경 등 도시관리를 효율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제1차 종합계획(2009~2013년)은 U-City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U-City 계획·건설·관리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U-City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주력하였다. 2차 종합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U-City 민간산업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감효과가 큰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분야 등을 핵심 U-City 서비스로 중점 구축토록 하고, 분산되어 있는 CCTV관계, 교통, 시설관리센터 등을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U-City 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비용절감형 U-City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기존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형 U-서비스를 중점 육성할 것이다. U-City 구축 및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국산 통합플랫폼 등을 확대 보급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U-City 관련 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U-City 정보(행정·공간·센서정보 등)의 개방·공유, 표준화를 통해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U-City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민간사업자의 일자리 창출, 시민 편의 제고 및 지자체의 U-City 운영비 보전 등을 위해 국가 R&D 투자를 통해 개발한 U-City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sup>2</sup>의 보급을 확산한다.

2 (예) BSP(Business Service Platform) R&D 성과물로서 개발된 U-City 정보를 활용하여 민간사업자가 U-서비스 개발·운영

U-City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U-City 석박사 과정 및 취업자 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료생을 대상으로 U-시범도시사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과 일자리를 상호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취업 선배와의 멘토제도,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Job Festival 등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U-City 교육 수료생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비중이 높아지고 진출분야도 첨단 도시분야로 확대함에 따라 U-City의 글로벌 시장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 국내기업 지원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축적·제공을 위한 관련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환경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City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국제표준화 우선 추진대상 선정, 해외 전문가와 공동 연구사업 추진, 국제표준화기구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 등)

2차 종합계획은 그간의 U-City 추진정책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향후 5년간 U-City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U-City 관련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2013.10.0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사회복지시설 마당과 옥상에 “나눔숲” 만들어요

강원도는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녹색자금(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2014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사회복지시설 녹색쉼터 조성 9개소 1,040백만 원, 녹색 나눔 숲 4개소 1,800백만 원 등 총 13개소 2,840백만 원의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녹색자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마당이나 옥상에 녹색쉼터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을 통해 10개소(사회복지시설 6, 녹색 나눔 숲 4)를 조성하여 시설 이용자·가족,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조성한 녹색쉼터를 개방하여 지역주민들

이 함께하는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이용자(노인·장애인·지역주민 등)들의 특성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단계부터 산림청 녹색사업단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숲」 조성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김준해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산림청 녹색자금을 매년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생활권 주변에 녹색 숲을 조성하여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10.18.  
강원도 산림자원과

## 행복도시, 첨단 유시티 '착착'

### U-City 1단계사업 마무리 및 2차 사업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박인서)는 행복도시를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첨단 정보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유시티(U-City, 유비쿼터스 도시) 1단계 2차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행복도시 5개 생활권(1-1, 1-3, 2-1, 2-2, 2-4)을 대상으로 교통(종합교통정보, 교통정보관리 및 연계, 돌발상황관리, 대중교통정보), 방법(U-Safety), 시설물관리(종합시설물관리) 등 모두 6종의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2차 사업 착수에 따라 2015년까지 1,2생활권 전체에 대한 통합 방법 및 교통 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유시티 1단계 1차 사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이미 입주가 시작된 첫마을, 정부세종청사 주변(1-2, 1-4, 1-5, 2-3, S-2)을 대상으로 방법, 교통서비스 등을 시험운영 중이며, 2013년 말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박희주 행복청 지식정보팀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유시티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6종서비스 이외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방재, 교통흐름관리, 녹색교통, 주차정보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0.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식정보팀

## 2014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 56만2천톤 감축 추진

### 온실가스 다배출 66개 업체, 금년보다 2배이상 감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려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건물 51개 업체, 교통 15개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도 배출허용량 및 감축량을 설정하여 10.22일 통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업체들이 2014년에 감축하여야 하는 온실가스량은 총 56만 2천 톤으로 2013년 감축량 26만 8천 톤의 2.1배이며, 부문별로 보면 건물부문이 46만 4천 톤으로 '13년 20만1천 톤의 2.3배, 교통부문이 9만 8천 톤으로 '13년 6만 7천 톤의 1.5배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최근 6년간(2007~2012)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관리업체들과의 설명회 및 협의를 거쳐 2014년도의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목표량을 산정하였으며,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설정협의체」<sup>3</sup>에 업체별 기준연도 배출량 및 2014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설정(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sup>3</sup> 목표설정협의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공무원, 학계, 연구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22명으로 구성

국토교통부 소관 2014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단위: 개, 천CO<sub>2</sub>톤)

부문별	관 리 업체 수	기준연도 배출량	2014년 예상배출량	2014년 배출허용량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평균 감축률)	
건물	51	4,731	5,351	4,887	464	(8.34%)
교통	15	4,285	4,733	4,635	98	(2.07%)
합계	66	9,016	10,084	9,522	562	(5.57%)

건물부문의 경우,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감축률은 2013년 평균 4.4%보다 높은 평균 8.34%를 적용하였다.

교통부문의 경우도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률은 2013년 평균 1.56%보다 높은 평균 2.07%의 감축률을 적용하였다.

금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4년에 목표 이행을 한 후에 2015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축목표 이행활동 상황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2013.10.23.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 녹색도시 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제1회 그린스타트 부산대회’ 개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 운동은, 우리가 앞장선다!”

부산시는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22층 환경녹지국 회의실에서 구·군 그린리더협의체, 민간단체, 업체, 학생 등 그린리더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그린스타트 부산대회(이하 부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각 부문 그린리더들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손병철 부산시 환경정책과장이 그린리더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인사말에 이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21개 팀의 녹색생활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배계선 부산그린스타트네트워크 공동 부회장,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 최두수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사무관, 차환옥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장학사, 윤삼석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담당 사무관 등이 위촉되었으며 △저탄소 생활실천 주제와의 부합 여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성 △그린리더의 적극성 및 참여정도 △사업의 독창성 참신성 △생활실천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한 사업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평가를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부산대회가 녹색생활 실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린리더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보 교류를 통한 자질향상을 위해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기후변화대응담당 윤삼석 사무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한 사례는 서로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그린스타트 운동에 시너지 효과를 더하는 한편, 내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산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그린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3.10.29.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 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모두의 지혜를 모은다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마련 공개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 건축설계산업을 세계 TOP5<sup>4</sup>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말 까지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9일 산·학·연 TF팀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그간 총 46회(팀 평균 5.1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실행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0월 30일 오후 3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개 TF에는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 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건축사협회와 AURI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건축설계 발주 방식에 대하여 TF는 2.3억 이상의 설계 공모방식 의무화, 그 이하는 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중 선택하되 공모 방식 다양화를 통한 발주기관과 공모 참여자의 부담 완화,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방식 선택 등을 제안하였다. 공모방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디자인과 기술력이 뛰어난 설계자 선정과 창의적 공공 건축물이 증가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지식기반의 산업구조 정립을 위하여 TF는 “기획” 업무와 “설계”의 제도적 분리, 공공 건축사업에서는 설계 전 “기획” 업무 수행 의무화, 설계 대가기준에 대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다양한 표준계약서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공공 건축사업 계획과 공정한 계약·보상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셋째,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TF에서는 책임건축사제도 도입을 통한 소속 건축사의 권한과 의무 확대,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조사와 DB 구축, BIM 활성화 방안, 건축진흥원의 역할 제언, 건축문화 진흥과 신진건축사 육성 방안,

건축설계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실력 있는 신진 건축사들의 성장,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국내 건축설계의 해외진출 기반마련 등이 기대된다.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금년말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2013.10.30,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공모 선정

경북 구미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산림청에서 2013. 9. 26부터 10. 14까지 실시한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공모에서 경북 구미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미시는 도시숲 내나무 가족이름표 달기 운동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과 구미 국가산업단지내 수목 무상양여 협약을 통한 기업참여 견인 등 지역구성원들 활동에 대한 적극지원이 평가의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그 외 공모수상 기관에는 서울 강동구, 충북 청주시가 우수기관에, 강원 원주시, 전남 광양시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박도환 과장은 "이번공모와 관련한 시상은 10월말 지자체 도시숲 정책관계관 워크숍에서 사례발표와 함께 있을 예정"이라 말하며 "국민 생활권 녹색공간은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으로 도시녹화운동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13.10.30,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4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ENR 기준, '11년)

## 원도심 행복찾기 ‘우리 마을은 내가 가꾼다’

2014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선정

인천시는 올해 8개 선도사업 이후 내년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주민제안으로 7월까지 신청받았다.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구도심 재생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주민제안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 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취지의 주민 제안 사업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부방, 놀이방 등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그동안 주민이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내용을 구에 신청하면,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에서 검토하여 최종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2014년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구에서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마감결과 동구 1, 남구 18, 연수구 5, 남동구 1, 부평구 4, 계양구 1, 서구 18개 사업 등 총 48개 사업이 신청되었다. 사업대상지 결정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로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민제안사업, 생활밀착형 주민관심사업을 중심으로 토론 끝에 최종 10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환경개선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0.0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거환경정책관

## 안전한 보행 환경으로 진화하는 인천 !

교통약자를 배려해 보도정비공사시 체계적인 보행환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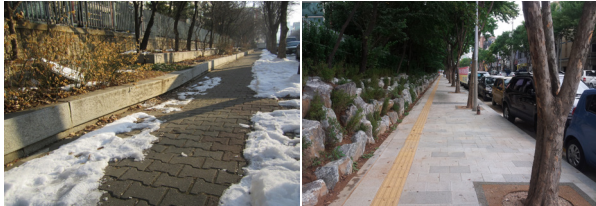
인천시의 보행 환경이 진화하고 있다. 보행자가 “걸으면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 중심이었던 보행 환경을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보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살린 디자인과 테마를 부여하여 걸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도시공간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20여명의 관련전문가로 보도정비 T/F팀을 구성한 후, 「보행환경정비지침」, 「보도공사시공매뉴얼」, 「보도관리계획수립기준」등 보도정비공사 설치·정비기준을 마련하여 공사계획~시공~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행환경정비지침」, 「보도공사시공매뉴얼」 제정으로 보도블럭 시공절차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정밀시공과 함께 「보도관리계획」 수립 및 공사실명제 시행을 통해 공사관계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자율경쟁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정착하고자 사업평가 및 우수기관, 공무원에 대해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9. 30일 서구 탁옥로, 부평 부평대로, 남동 호구포로, 연수 매소홀로(문학경기장) 등 보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보도공사시공매뉴얼」에 의한 시공여부 확인 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전국제전·2014년 AG 대비 주요 경기장과 성화봉송로, 숙박시설 점검과 병행 하여 실시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직접 현장을 찾아 해당 사업 부단체장, 국장, 담당과장과 함께 정비지침 적용여부 등에 대한 업무연찬과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전 문제점 파악은 물론 대책강구 및 예산 절감, 지역별 특색 아이디어 개발 등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안전한 보도정비사업은 현재 중구 셋골로 41번길의 15개소에 8,059백만원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 공사 전

■ 공사 후

2013.10.02.  
인천광역시 도로과

##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미래의 문' 열린다

2~6일 공주시 고마복합예술센터서 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

충남의 건축과 공공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2013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가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공주시 고마복합예술센터에서 개최되었다.

'見·바라보다(시간·장소·사람)'를 테마로 한 이번 문화제는 다양한 전시행사와 심포지엄 등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충남 건축·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건축·공공디자인 분야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서 충남건축상과 우수공공시설물 인증서, 충남건축문화대전, 충남공공디자인전, 어린이집 그리기·만들기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2013 충청남도 건축상' 대상 수상작에 선정된 공주 계룡면 사무소(설계 도움건축)는 대지와 하늘을 이어주는 용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건축물로 지역의 상징적 요소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옥상녹화를 통한 건물과 자연을 하나로 어우르고,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등 친환경 중심의 건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축문화대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김규태, 강소희씨의 '자연으로 돌아가 놀이를 배우다'는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이

라는 공모 키워드를 작품에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최우중씨의 'UPBS'는 사람 중심 디자인과 공공공간 디자인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그리기 부문에서는 박다현양의 '맛있는 아이스크림 집'이 대상, 만들기 부문에서는 심민서군의 '로켓트 발사'가 대상을 차지했다.

건축상과 건축문화대전 및 공공디자인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2일 공주 고마복합예술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2013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에는 충남건축사, 대학교수, 국내외 디자이너 특별작품초대전을 비롯해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공산성 테마기행을 개최하였다. 행사로는 2일 첫째 날 공주 고마복합예술센터에서 개막식과 함께 문화제 한마당이 열리며, 4일에는 국립공주박물관 강당에서 '공주지역 원도심 프로젝트'와 연세대학교 김홍규 교수의 '스토리가 있는 도시디자인 이야기' 등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5일에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아저씨 창의체험'이 진행되었다.

건설교통국장은 "올해는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가 백제문화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돼 문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전시행사로 그치지 않고 낙후지역 대안제시 등 현실과 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3.10.02.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도시 재생·재활용 콘셉트 '선유도 이야기관' 6일 문 연다

서울시, 선유도 공원 내 한강전시관 리모델링,  
'선유도 이야기관'으로 탈바꿈

2002년 개관했지만 낡고 노후한 시설과 시대와는 동떨어진 일방적인 정보전달 형태의 전시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선유도 공원 내 한강전시관이 도시 재생·재활용 콘셉트의 '선유도 이야기관'으로 탈바꿈, 6일(일) 재개관한다.

선유도 이야기관은 총면적 1,374㎡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상설전시실, 지상 1층은 기획전시실을 수시로 선보이게 된다. 지하 1층에서 복도로 연결되는 120석 규모의 대강당인 강연홀에서는 공연, 강연,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특히 선유도 이야기관은 기존의 일방적인 전시에서 탈피, 선유도가 간직하고 있는 각종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문가, 예술가,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전시와 고정형 공간 전시뿐 아니라 바닥과 벽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영상전시가 이뤄지는 전시공간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재개관 첫 기념 전시로 1층 기획전시실에서 '좋은 곳, 고쳐쓰기'를 주제로 한 기획전을 한 달간 연다. 조성룡 성균관대 석좌교수의 기획 아래, 최근 3~4년간 한강 변 나들목 프로젝트 2개소, 양화시민공원, 운동주 문학관, 꿈마루정원 등 기능을 상실했던 장소에 새 의미를 불어넣어 눈길을 끌었던 18곳의 공공프로젝트장소를 소개, 그동안 서울시가 추구해온 공공건축, 공공장소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한다.

개관식은 6일(일) 오후 3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기획 전시에 참여하는 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 도시정원사, 선유도 공원 행복위원회,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춘희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이번 리모델링으로 정체성을 잃었던 이야기관이 재활용·재생산의 선유도 공원 이미지에 맞도록 재탄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유도의 유익한 공공성을 전시함으로써 공원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문화를 재생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10.04.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디자인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 세미나 개최

10. 4.(금) 15:00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국제회의실

대구는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0월 4일 오후 3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과 공공디자인」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란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사전에 범죄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기법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용해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됐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셉테드 전문가, 교수, 경찰,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의 필요성,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 건축물 등 각 분야의 셉테드 기법 도입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前 한국셉테드학회 회장인 이경훈 고려대 교수와 토론에서는 前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인 김영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6명이 참여하였다.

대구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구현의 하나로 지난 7월 24일 전국 최초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대구광역시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시민안전 종합대책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셉테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014년에는 도시계획,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에 셉테드 도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을 위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환경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안전행정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셉테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10.04.  
대구광역시 안전총괄과

###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하늘정원 열린다!

옥상녹화로 도시환경과 체험 공간, 두 마리 토끼를 잡자

대구는 2014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에 발맞춰 레일 주변 가시권 내 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하늘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준공된 건물로 옥상녹화 가능 면적이 50㎡ 이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복지시설, 업무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높은 민간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해당된다.

채소원, 플라워정원, 소담정원(채소원+플라워정원), 잔디정원, 휴(休)정원 등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최대지원 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유형별로 50~80%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인 또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올해 신청대상 40개소 중 19개소는 조성 완료됐고 나머지는 조성 중에 있다.



■ 꿈나무어린이집

■ 서구 일반주택

2013.10.04.  
대구시 창조도시기획과

라 재난시 초기 발견 및 진압도 더욱 용이해져 건물 위험도가 매우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0월 7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MOU를 맺고, 위와 같은 사항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위와 같은 내용 외의 다양한 재난대응역량강화 및 재난 관련 보험 활성화 등 대국민 서비스 지원확대의 공통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화재보험협회에 가입된 전국단위 특수건물 DB를 활용하여 재난손실추정 및 실시간 재난 위험성 평가에 관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재연구실장은 “이번 MOU는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기조에 맞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선진적 방재기술을 민간방재기관과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관 협력 구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국민을 위해 실생활에서 진정 필요한 재난 대비 기술 연구에 앞으로도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향후에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번 협약과 같은 다양한 재난 대비 및 대응 관리기술의 실용화와 첨단화를 꾀하기 위해, 민간, 지자체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공동협력을 확대해감으로써 재난 연구 및 재난 대비·대응 연구 결과의 실생활 활용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3.10.07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 대형 특수건물 DB 활용, 화재·누수·붕괴 등 실시간 건물위험평가, 대비 안 열려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화재보험협회 MOU를 통해 합의

전국의 대형 특수건물에 대한 민간 DB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화재, 누수, 붕괴 등 재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연구된다. 이러한 방안이 연구되면 대형 건물의 재난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 대비가 가능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

### 서울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10월 12일(토) 개최

서울시는 지난 9.26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

랜)(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10. 12(토) 14시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약 250여 명의 전문가,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되었고, 이번 공청회는 계획(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되었다. 공청회에서는 복지, 산업, 환경, 도시, 교통, 주택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 단체, 시의원 등이 토론에 나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고 시민의 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공청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시민들은 서울플랜 전용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계획(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10.12 개최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와의 협의, 온·오프라인 시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까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2013. 10. 0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서울시, 전국 최초 층간소음 교육교재 선보여

층간소음 예방, 3살 버릇 여든까지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예방교육 교재 '층간소음 걱정 그만'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 층간소음 예방 관련 홍보물 등을 제작·안내했으나, 이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연령대별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우선 시범적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73.1%가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였다.

예방교육 교재는 '만화 및 삽화'로 구성되어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들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층간소음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층간소음 예방교육이 가능한 교과 시간"을 교재에 안내하여 현장에서 교사가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는 크게 △층간소음은 이럴 때 생겨요, △소음으로 이웃이 힘들어요, △이웃을 먼저 생각해요, △소음 줄이기 잘할 수 있어요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 교재를 기획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층간소음 예방교육 교재는 서울시 각 교육지원청으로 배송되며,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으로 배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재는 10월 초 중 서울도서관 서울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도서관(lib.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원문(e-fulltext)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 충간소음 원인

연번	소 음 원	건수	비율(%)
	총 계	1,829	100
1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1,338	73.1
2	망치질	67	3.7
3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43	2.4
4	악기(피아노 등)	38	2.1
5	가전제품(TV, 청소기, 세탁기 등)	35	1.9
6	대화(언쟁 등)	31	1.7
7	문 개폐	25	1.4
8	급배수(화장실, 샤워소리 등)	25	1.4
9	기계진동	22	1.2
10	운동기구(런닝머신, 골프퍼팅 등)	17	0.9
11	기타	188	10.2

※ 출처: 충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진단 신청건수(1,829건 2012년 3월~12월)분석결과

2013.10.07.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을 통해 충청남도의 특색 있는 건축물 만들기과 녹색건축물에 대한 비전·목표제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간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도는 이번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충남도의 환경·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건축환경, 문화 및 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문화 발전 및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의거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수요와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현황을 고려한 충남도 차원의 접근 방향이 수립되는 중요한 계기로써 새로운 건축문화의 기본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13.10.10.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충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 8일 도 건축정책 기본목표·추진방향 설정 등 기대

충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와 자문위원, 도 관계자 및 시·군 건축 관련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축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도 건축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도시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과 단계별 건축정책, 녹색 건축물 조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된다.

건축관련 기본계획은 시·군 지역의 건축 현황을 반영한 정책 방향의 설정,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전략과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5년 단위의 광역건축 기본계획으로 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는 성격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건축 관련 기본계획

## 부산진역사 주변이 다시 밝아집니다!

## 부산시, 부산진역사 환경정비사업 시행

부산역과 더불어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하던 부산진역사가 여객업무 중단으로 폐쇄되어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으며 역 광장은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소의 식당으로 사용되는 간이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다. 또한, 밤이 되면 역사 주변이 많이 어두워져 통행하는 주민들을 불안을 야기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0월 하순부터 코레일, 동구청과 공동으로 폐쇄되어 방치된 부산진역사(驛舍)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환경정비 내용은 △역사 접근방지 경관판넬 정비(녹색 판넬에 친환경 그림 도색) △차량 진입방지 철재 간이펜스 철거 △화단조경 관리 △야간 방법등 보강 △부산진역사 옥상 광고물거치대 정비 △노숙자 무료급식소 식당천막 정비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진역사는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부산의 역사와 애환을 간직한 채 2005년 여객업무 취급중단으로 역사의 뒤편길에 남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폐쇄된 역사는 전등불빛도 없이 방치되어 왔으나 이번 환경정비를 통해 부산진역사를 다시 환하게 밝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3.10.11.  
부산시 창조도시기획과

## 인천시 건축정책 중장기 비전·전략 나왔다

9대 추진전략과 18개 실천과제 담은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인천시는 건축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담은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0월 14일 밝혔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광역차원의 발전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인천시 이번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 아름다운 인천” 비전 아래 △지역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인천 △지속가능한 건축을 선도하는 인천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인천으로 3대 목표 정하고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9대 추진전략과 18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추진전략은 △원도심 정주환경 재창조 △품격있는 도시 디자인 구현 △지역별 정체성 확립 △녹색건축 기반조성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 △지역 건설산업 자생력 확보 △역사·문화 자원보전 및 활용 △건축문화 기반조성 △건축교육 저변확대 등이다.

비전인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 아름다운 인천”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건축문화자산 DB구축, 기초건축교육, 건축문화재단설립, 건축문화화 활성화 등 다양한 건축문화 사업을 실시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 걸맞은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으로 인천시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이 향상되어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10.14.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 2013년을 폐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원년으로 -폐가 없는 마을로 거듭나는 부산!

부산시는 서민 생활 불편해소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를 ‘폐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내에 있는 폐가를 없애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가 철거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책의 중요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2년까지 149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어 1,670여 동을 정비하였다. 올해도 22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어 현재 330여 동이 철거 중에 있다.

부산은 한국전쟁 중 피난민촌이 현재의 주거지로 이어지면서 불량주거지가 곳곳에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으나 대부분이 사업성 결여로 재개발 등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및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불량주택 밀집 취약계층 거주지에서 빈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내 곳곳에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유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됨에 따라 폐가 정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부지는 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 공간 등으로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제공, 일거양득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사업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라는 범시민적 인식개선과 함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관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겠다.”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폐가 철거사업의 의지를 확고히 하면

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3.10.16.  
부산시 도시정비담당관실

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3.10.17.  
부산광역시 도시경관담당관실

### 공공디자인 및 100년 후 부산의 모습 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10월 18일 오후 5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상식 개최

부산시는 공공디자인의 관심 제고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13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이하 공공디자인 공모전)'과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100년 후 부산의 모습 상상공모전(이하 상상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고 10월 18일 오후 5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 공모전은 지난 5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공공디자인 공모전에는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도시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 유형의 다양한 분야에서 총 95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결과 대학·일반부에서는 경성대 구자림·최하연씨의 'Triangle'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 밖에 금상 1점, 은상 3점, 동상 6점, 특선 10점, 입선 15점을 최종 선정했다. 고등부에서는 양운고등학교 이소민 학생의 'Sound of Jungle Gym'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시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상상공모전에는 총 348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대상에 '미래의 해상도시 부산'을 출품한 동평중학교 정영운 학생의 작품이 선정된 것을 비롯해 최우수 5점, 우수 15점, 장려 25점이 선정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작품들은 향후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고, “부산의 도시 브랜드 향상 및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

### 도시재생·농촌 리모델링 사업 위한 워크숍 개최

충북도는 기존의 대규모 공동주택건립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과 마을 단위의 기능별 공간모델 제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령개정 취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실시하였다. 도는 17일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를 초빙해 충북 도내 12개 시·군 담당과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내년 6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법령개정 취지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교육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의 대규모 공동주택건립 방식의 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통하여 쇠퇴한 도시지역의 활력화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촌의 개발이 기존의 주택 신·개축의 단순개발에서 마을(지구)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마을안길, 상·하수도, 주차장 등 설치와 복합공간형(마을회관형, 경로당형 등), 전용 숙박형(독립, 그룹홈) 등 기능별 모델 제시와 중앙정부, 시·군, 주민 등 역할분담으로 효율성 증대방안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앙정부 시책을 반영하여 시·군에서 오는 12월에 공고될 도시재생 선도사업(경제기반재생형, 근린재생형)에서 타 시·도에 앞서 경쟁력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촌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후보지 조

사 등 사전준비와 2014년도 농림부에서 추진 예정인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지원 확충사업』으로 심화된 농촌의 고령화 및 독거가구 지원대책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 등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도심지역 활성화 및 농촌 주거복지향상과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10.17.  
충청북도 공보관

## 대전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시행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289필지 263,599㎡) 지구 지정 고시

대전시는 17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 9개 지구 중 3개 지구 289필지(263,599㎡)에 대한 공시지가기준 재산가액 235억 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금번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동구 삼괴2지구, 유성

구 서당골2지구, 대덕구 이현1지구로서 각각 70%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게 되어 사업지구 지정요건이 충족되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지역적으로 보면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밀리거나 틀어지는 불규칙형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형화시켜 나가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지는 현실경계로 조정해 나간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가치를 크게 높이고, 수치화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시민의 갈등 및 경계분쟁 요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와 같이 디지털지적구축이 완료되면 공간 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엔 선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측량은 최첨단 (GPS)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될 경우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지적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10.18.  
대전시 도시주택국 지적과

## 공간정보 산업,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이란·요르단서 공간정보 오픈포럼...측량·지도제작 기술협력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이란 및 요르단 방문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이란 테헤란과 요르단 아카바 및 암만 현지에서 “공간정보 오픈포럼(Geospatial Open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오픈포럼은 중동지역 공간정보 분야 의사결정자, 전문가, 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공간정보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하고 이란 및 요르단과 기술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의 측량 및 지도제작을 대표하는 중소기업<sup>5</sup>이 참여하는 이번 오픈포럼은 우리의 공간정보 정책 및 기술 소개, 현지 관계자와의 1:1 컨설팅, 현지 프로젝트 답사 및 발주처와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자원부국인 중동지역으로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정치·종교적으로 안정적인 요르단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하여 요르단 왕립 지리원과 측량 및 지도제작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요르단 일부지역(사해, 아카바)의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기업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란 및 요르단 지리청의 고위급 인사<sup>6</sup>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중소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본 포럼은 중소기업에게 해외수주의 직접적인 기회와 잠재적 해외시장 발주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것이며, 자원 및 도시개발, 재난대응 등을 위하여 정밀 측량 및 지도제작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동지역으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포럼에 앞서 임주빈 국토지리정보원장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2차 UN-GGIM-AP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UN-GGIM-AP 부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대응에서 국가 공간정보 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2015년 우리나라

라에서 유엔회의의 유치성과 UN-GGIM-AP<sup>7</sup> 차기 의장 진출을 위해서 외교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2013.10.2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시민이 즐기는 행복한 도시농업

### 부산시, 도시농업육성 10개년 계획수립 완료

부산시는 올해부터 시작한 도시옥상농원(텃밭) 조성사업이 도시민의 자연에 대한 욕구 충족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품격제고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들의 여가활동으로 점차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을 통해 부산시는 2022년까지 총 4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570,200㎡규모의 옥상텃밭, 지상텃밭, 공영 시민텃밭, 공영 시청텃밭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에 살면서 향수가 그리운 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14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농업육성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농축산유통과 내에 '도시농업T/F팀' 구성을 완료하였다.

분야별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옥상텃밭은 옥상을 보유한 시민이 적합한 곳에 텃밭 조성을 신청하면 올해처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지상텃밭 조성은 생활주변에 짜투리땅이 있는 경우에는 자투리 텃밭을, 자투리 땅은 없으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유휴 지상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상자나 박스, 테크를 설치하여 텃밭으로 만들어 경작

5 대한측량협회, (주)신한항업, (주)한국지오매틱스, 삼부기술, Gaia3D

6 이란: Mahmoud Ilkhan, 이란 국가지리정보청장 요르단: Awmi al-Khasawneh, 요르단 왕립 지리청 및 서아시아 우주과학기술 센터장

7 UN-GGIM-AP : 유엔 공간정보관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의체(56개 회원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와 옥상이 없는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에 처음 추진되는 공영 도시농업농장(시민텃밭)은 대규모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텃밭과 캠핑장이 함께 들어선 공간으로 조성된다. 부산시는 시민텃밭을 가족과 함께 체험도 하고 농작물도 직접 수확하는 곳으로 조성하여 가족간, 세대간 소통의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 시청 텃밭은 쾌적한 직원 근무환경 조성 및 시민들에게 휴게와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며 여기서 수확한 농산물을 시민과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시 배광효 해양농수산물국장은 “도시농업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2022년의 부산은 텃밭으로 인한 도시재생과 도시 녹화에서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고, “100만 도시농부가 결집하는 농경문화축제 등의 개최를 통해 우리 멋과 향기가 있는 관광도시 부산으로 성장하는데 도시농업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0.28.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오고 있다. 역대 미래정부상은 한국 행정안전부·환경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이사회, 브루나이 국립전자정부센터 등이 수상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7년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천상오 및 사이버토론방’과 2011년 시민을 위한 ‘GIS포털시스템’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산재되어 있는 방대한 서울의 도시계획정보를 한 곳에 집약시켜 GIS 지도기반의 내부 행정시스템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을 2006년 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 분석하여 도시계획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이와 연계하여 2011년 2월부터 도시계획 정보를 실시간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도와 그림을 활용해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쉽게 도시계획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민 인터넷 서비스인 「서울 도시계획포털」을 오픈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수상은 서울의 도시계획정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전달하고, 도시계획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제공하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3.10.30.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화 사업 미래정부상 수상

서울시, '미래정부 어워즈 2013'에서  
올해의 북아시아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

서울시가 지난 25일(금)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미래정부 어워즈 2013' 시상식에서 서울의 도시계획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이 '북아시아 올해의 공공 부문' 미래정부상을 수상했다.

미래정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정보화 커뮤니티인 아시아태평양 '미래정부(FutureGov)'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해

## 부산시, 부산 도시계획정보지 창간호 발간

관련 공무원의 이해도 증진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 도시계획정보지' 발간

부산시는 비예산·저비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소프트파워 시책' 추진과제로 선정된 '부산 도시계획정보지(이하 정보지)' 창간호를 11월 초에 발행한다.

정보지는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에게 도시계획 관련 법률, 조례 개정내용 등을 적극 공개하기 위해 발간된다. 또한, 도시계획 분야 연구 및 선진 개발 사례 등을 소개하여 관련 공무원의 폭넓은 도시계획 정보와 신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지는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전략사업인 ‘미래부 산발전 10대 비전 사업’ △도시계획 분야의 폭넓은 관점을 얻는 ‘도시계획의 선진 개발사례 및 연구내용’ △도시계획 관련 일반시민이 궁금해 하는 ‘용어 및 허가 절차의 알기 쉬운 해설 및 부산시 주요 정책사항’ △도시계획과 연계되는 ‘법·조례 개정사항’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부산시는 관계자는 “이번 부산도시계획정보지 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계획 분야의 다양한 공공정보 제공과 함께 관련부서 간 업무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정보지는 부산시 홈페이지(시 홈페이지 → 해양수도부산 → 부산의 현재와 미래 → 부산시 도시계획)를 통해 열람 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1, 4, 7, 10월에 분기별로 발행할 계획이다.

2013.10.30.  
부산시 도시계획과

## 이슈와 연구동향 #6

# 도시형태와 통행관련 영향 (1990-2010)

### (Urban Form and Travel-related Impacts)

글·진행 김승남(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도시형태가 인간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왔다. 특히, 도시형태와 통행행태의 관계는 이것이 미치는 환경적 파급효과인 에너지 소비, 대기 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과 중요성으로 인해,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온 연구 주제이다.

토지의 조방적 이용과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실증적 근거(empirical evidences)에 대한 문헌검토 연구(literature review)를 통해, 연구로부터 합의된 사항(공통된 합의)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공공·민간 부문의 도시설계가들에게는 이처럼 실증적 근거에 기반을 둔 설계(evidence-based design)가 일반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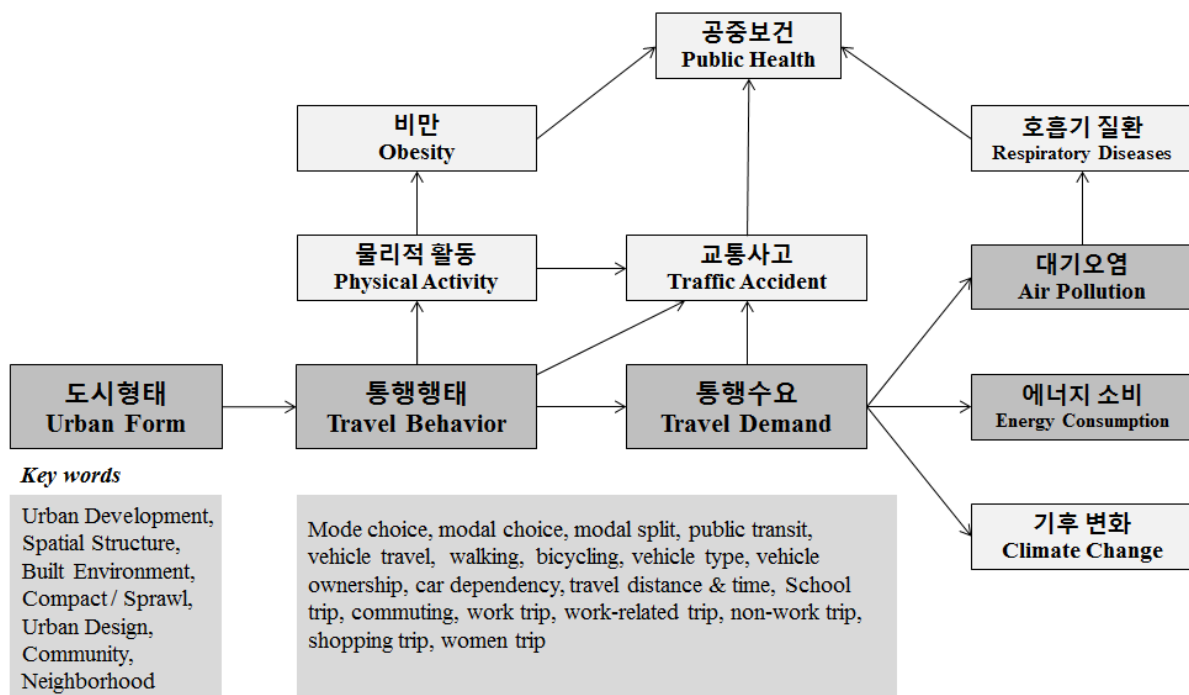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함은 물론이거니와, 결코 많지 않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노력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내 학계는 바람직한 도시형태에 대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의 도시 맥락이 저밀도의 조방적 도시 공간구조를 갖는 북미 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계획적·설계적 관행이 여전히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결과만을 채택하는 관행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확정오차(confirmation bias)와 출판오차(publication bias)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맥락에 적합한 연구결과가 더욱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적 관점에서 통행관련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관련 국내 실증연구들에 대한 Systematic Literature Review를 시도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도시형태와 통행행태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이슈, 방법론, 변화 흐름 파악
- 선행연구로부터 합의된 결과 정리(북미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국내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연구결과 비교 및 차이점 발견)
- 국내 연구에서 향후 어떤 부분을 더 연구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방향 및 연구문제 제시(연구 주제, 검증해야할 연구 문제, 방법론의 개선 등)

## 문헌검토 방법 및 범위

도시형태가 통행과 관련된 각종 행태적·환경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그림 1). 도시형태는 1차적으로 개인의 통행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개인의 물리적 활동 수준과 집계적 통행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또다시 도시의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도시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매우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는 “도시형태 및 도시공간구조 특성이 통행행태, 통행패턴, 교통에너지 소비(통행수요), 대기오염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도시형태와 통행관련 영향의 관계에 대한 연구 흐름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방법을 적용해 문헌연구를 수행했다. Systematic Literature Review는 Pont et al.(2009)<sup>8</sup>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헌검토 방법으로서,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추출하고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과정은 Meta Analysis와도 유사하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태와 관련된 변수의 유의성과 부호만을 정리했으며 효과의 크기를 종합하지는 않았다. Systematic Literature Review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분석 대상 논문 선정기준

#### ❶ 분석대상 학회지 및 기간 :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및 대한교통학회 논문집(1990 ~ 2010)

#### ❷ 분석 대상 논문주제 :

- 도시형태 및 도시공간구조와 통행행태, 통행패턴, 교통에너지 소비, 대기오염 농도 중 1개 이상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논문

#### ❸ 논문 선정기준 :

- 서울 또는 수도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 단, 교통에너지 소비 및 대기오염 농도와 관련된 연구는 선행연구 수가 적고 주로 시군구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 지므로, 비수도권 대상 연구도 포함(예: 안건혁, 2000)
- 실증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이론연구 및 방법론 연구는 제외
- 실증분석 모형에 하나 이상의 도시형태 및 도시공간구조 관련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단순히 거주지 또는 고용지가 위치한 지역을 더미변수화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분석자료, 분석방법론, 변수구축방법, 관측치 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연구 결과의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제외(예: 김성희 외, 2001)
- 통행행태 연구의 경우,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제외(예: 농촌 노인 대상 연구 등)

8 Pont, K., Ziviani, J., Wadley, D., Bennett, S., and Abbott, R. (2009) Environmental correlates of children's active transporta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Health & Place*, 15(3): 849-862.

## 분석 대상 논문 선정결과

- ➡ 두 학회지에서 해당 기간 동안 발표된 모든 논문을 검토해 1차적으로 70개 논문 선정
- ➡ 1차 선정된 논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3개 논문 선정
- ➡ 도시형태와 개인단위의 통행행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계적 통행패턴, 교통에너지, 대기오염과 관련된 연구가 각각 4-5편 가량 선정됨

코드	참고문헌	주제	분석대상 및 분석단위	분석 시점	주요 연구자료의 출처
1	김승남 외(2009b)	통행행태	수도권, 개인단위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2	김승남, 안건혁(2010a)	통행행태	서울, 개인단위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3	김승남, 안건혁(2010b)	통행행태	수도권, 개인단위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4	김형태(2009)	통행행태	수도권 61개 시군구, 개인단위	1990, 1995, 2000,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자료
5	성현곤 외(2008)	통행행태	서울시 26개 역세권, 개인단위	2007, 9-10월	설문조사
6	송윤선 외(2008)	통행행태	서울시, 개인단위	1996, 2002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7	신상영(2003)	통행행태	수도권 64개 시군구, 개인단위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자료
8	전명진, 강춘령(2009)	통행행태	수도권, 개인단위	1995,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자료
9	전명진, 백승훈(2008)	통행행태	수도권, 개인단위	1990, 1995, 2000,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자료
10	전명진, 정명지(2003)	통행행태	수도권, 개인단위	1980,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자료
11	권용식, 김창석(1998)	통행패턴	수도권, 시군구 단위(웅진군 제외)	1980, 1990, 1995	인구주택총조사 통근 O/D 자료
12	서종국(1998)	통행패턴	수도권, 시군구 단위(웅진군 제외)	1990, 1995	인구주택총조사 통근 O/D 자료
13	성현곤, 추상호(2010)	통행패턴	수도권, 읍면동 단위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14	송미령(1998a)	통행패턴	수도권, 교통존 단위(158개)	1990	인구주택총조사 통근 O/D 자료
15	송미령(1998b)	통행패턴	수도권, 교통존 단위(158개)	1990	인구주택총조사 통근 O/D 자료
16	김승남, 안건혁(2009)	교통에너지	수도권, 시군구 단위(웅진군 제외)	2006	석유공사 내부자료 등
17	남기찬(2008)	교통에너지	수도권, 시군구 단위	1995, 2000, 2005	통계청 현거주지별 통근통학 데이터(10% 표본조사)
18	송기욱, 남진(2009)	교통에너지	전국, 자치시군 단위(군제외, 146개)	2006	석유공사 내부자료 등
19	안건혁(2000)	교통에너지	전국 중소도시, 시 단위(22개)	1998	한국도시연감, 한국통계연감, 석유공사 내부자료 등
20	김승남 외(2009a)	교통에너지, 대기오염	전국 중소도시, 자치시군 단위(군제외, 54개)	2005	석유공사 내부자료, 대기환경 연보 등
21	오규식 외(2005)	대기오염	서울시, 행정동 단위	2001	ISCST-3 모델을 이용한 추정자료
22	오규식, 정희범(2007)	대기오염	서울시, 행정동 단위	2002	ISCST-3 모델을 이용한 추정자료
23	최열 외(2007)	대기오염	전국, 시 단위(인구 20만 이상 22개 도시)	1989-2003	한국도시연감, 대기환경 연보 등

## 문헌 분석 결과

### 도시형태 변수와 개인 통행행태의 관계: 통행수단 선택, 통행거리, 통행시간

최종 선정된 논문을 크게 통행행태, 통행패턴, 교통에너지, 대기오염 등 네 개 주제로 나누어 문헌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각 연구 주제별 연구결과는 종속 변수 유형을 기준으로 재정리해 제시했으며, 각 종속변수별로 분석모형에 적용된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의 측정방법,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측정방법, 통행목적, 분석방법, 모집단, 표본집단, 연구 문헌 코드 등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Stewart(2010)<sup>9</sup>가 활용한 실증연구결과 정리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때, 도시형태 변수는 해외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해외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4Ds+1C(Density, Diversity, Distance to Transit, Destination Accessibility, Compactness)'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분석결과가 가구생애주기, 소득, 지역 등으로 층화되어 여러 개로 제시된 경우에는 전체 샘플에 대한 결과만을 분석에 활용했으며, 한 논문에서 같은 자료에 대해 여러 분석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종모형을 기준으로 분석했다(예를 들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이 동시에 기재된 경우, 회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함).

➡ 도시형태와 개인의 통행행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통행수단선택, 통행거리, 통행시간 등이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도시형태 변수로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인구밀도, 고용밀도, 서비스업 밀도, 용도혼합도, 고용접근성, 직주균형, 도심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등이 주로 적용되었다. 분석방법의 경우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는데, 통행수단선택 모형에서는 로짓 모형류가 활용되었으며,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 모형에서는 일반적인 다중회귀모형과 TOBIT모형 등이 적용되었다. 통행목적은 통근통행이 주를 이뤘다. 도시형태 변수가 통행행태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한다.

9 Stewart O. (2010) Findings from Research on Active Transportation to School and Implications for Safe Routes to School Programs,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online first version.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측정방법	통행목적	n	Population	분석방법	코드
통행형태(Disaggregated): 통행수단 선택								
밀도	출발자-인구밀도			통근	43,611	취업자	조건부로짓	9-90년
	출발자-인구밀도		자가용 대비 버스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인), 버스, 도시철도)	통근	65,4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95년
	출발자-인구밀도	양		통근	70,7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00년
	출발자-인구밀도	양		통근	63,900	취업자	조건부로짓	9-05년
	출발자-인구밀도	양		통근	43,611	취업자	조건부로짓	9-90년
	출발자-인구밀도	양	자가용 대비 도시철도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인), 버스, 도시철도)	통근	65,4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95년
	출발자-인구밀도	양		통근	70,7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00년
	출발자-인구밀도	양		통근	63,900	취업자	조건부로짓	9-05년
	출발자-고용밀도	고용자수/시기화면적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인),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고용밀도	고용자수/시기화면적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고용밀도	고용자수/시기화면적	양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고용밀도	고용자수/시기화면적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고용밀도			통근	43,611	취업자	조건부로짓	9-90년
	도착자-고용밀도	양	자가용 대비 버스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인), 버스, 도시철도)	통근	65,4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95년
	도착자-고용밀도			통근	70,7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00년
	도착자-고용밀도	양		통근	63,900	취업자	조건부로짓	9-05년
	도착자-고용밀도	양		통근	43,611	취업자	조건부로짓	9-90년
	도착자-고용밀도	양	자가용 대비 도시철도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인), 버스, 도시철도)	통근	65,4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95년
	도착자-고용밀도	양		통근	70,7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00년
	도착자-고용밀도	양		통근	63,900	취업자	조건부로짓	9-05년
혼합도	도착자-고용밀도	고용자수/시기화면적	양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고용밀도	고용자수/시기화면적	양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고용밀도	고용자수/시기화면적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인),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고용밀도	고용자수/시기화면적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용도혼합	주거, 상업, 업무 용도의 엔트로피 지수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인),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용도혼합	주거, 상업, 업무 용도의 엔트로피 지수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용도혼합	주거, 상업, 업무 용도의 엔트로피 지수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인),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용도혼합	주거, 상업, 업무 용도의 엔트로피 지수	양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용도혼합	주거, 상업, 업무 용도의 엔트로피 지수	양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용도혼합	주거, 상업, 업무 용도의 엔트로피 지수	양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용도혼합	주거, 상업, 업무 용도의 엔트로피 지수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인),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용도혼합	주거, 상업, 업무 용도의 엔트로피 지수	양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증속변수에 대한 영향	증속변수 측정방법	통행목적	n	Population	분석방법	코드	
전근성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음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음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음	자가용 대비 버스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62,724	취업자	다항로짓	8-95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통근	83,587	취업자	다항로짓	8-05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음	자가용 대비 도시철도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62,724	취업자	다항로짓	8-95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음		통근	83,587	취업자	다항로짓	8-05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음		통근	43,611	취업자	조건부로짓	9-90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자가용 대비 버스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버스, 도시철도)	통근	65,4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95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음		통근	70,7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00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음		통근	63,900	취업자	조건부로짓	9-05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통근	43,611	취업자	조건부로짓	9-90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음	자가용 대비 도시철도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버스, 도시철도)	통근	65,4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95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통근	70,748	취업자	조건부로짓	9-00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통근	63,900	취업자	조건부로짓	9-05년	
대중교통-변수	출발자-직주균형	고용자수/주택수: 0.8미만(참조변수), 0.8~1.2, 1.2초과로 구분	양(0.8~1.2 만 유의)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통근	128,006	취업자	이항로짓	7
	도착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	음	자가용 대비 버스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62,724	취업자	다항로짓	8-95년
	도착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	음		통근	83,587	취업자	다항로짓	8-05년
	도착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	음	자가용 대비 도시철도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62,724	취업자	다항로짓	8-95년
	도착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	음		통근	83,587	취업자	다항로짓	8-05년
	도착자-직주균형	고용자수/주택수: 0.8미만(참조변수), 0.8~1.2, 1.2초과로 구분	음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통근	128,006	취업자	이항로짓	7
	출발자-버스접근성	버스정류장수/시기화면적	양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버스접근성	버스정류장수/시기화면적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버스접근성	버스정류장수/시기화면적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버스접근성	버스정류장수/시기화면적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버스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통근통학	1,714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측정방법	통행목적	n	Population	분석방법	코드	
대중교통-버스	출발자-버스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쇼핑	1,913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출발자-버스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음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여가	1,880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도착자-버스접근성	버스정류장수/시가화면적	양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버스접근성	버스정류장수/시가화면적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버스접근성	버스정류장수/시가화면적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버스접근성	버스정류장수/시가화면적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버스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통근통학	1,714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도착자-버스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음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쇼핑	1,913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도착자-버스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여가	1,880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출발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양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양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출발자-도시철도 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통근통학	1,714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출발자-도시철도 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음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쇼핑	1,913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출발자-도시철도 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음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여가	1,880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양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밀도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통근통학	1,714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쇼핑	1,913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여가	1,880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양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통근	13,733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면적비율		자가용 대비 비동력수단 선택 확률 (대안: 자가용(참조대안), 대중교통, 비동력)	쇼핑여가	1,402	성인 취업자	다항로짓	2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통근통학	1,714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쇼핑	1,913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도착자-도시철도 접근성(역)	가장가까운 정류장까지의 시간		자가용 대비 비자가용 선택확률	여가	1,880	서울시 거주 성인	이항로짓	5
통행형태(Disaggregated): 통행거리									
밀도	인구밀도(총밀도)	인구수/행정구역면적	음	ln(통근거리)	통근	4,066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10-80년
	인구밀도(총밀도)	인구수/행정구역면적	음	ln(통근거리)	통근	25,811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10-00년
	인구밀도(총밀도)	ln(인구밀도)		1일 통행거리	통근	38494	취업자(통근한 사람만)	다중회귀분석	3
	인구밀도(총밀도)	ln(인구밀도)		1일 통행거리	업무	48,470	취업자	TOBIT	3
	인구밀도(총밀도)	ln(인구밀도)		1일 통행거리	교육	48,470	취업자	TOBIT	3
	인구밀도(총밀도)	ln(인구밀도)		1일 통행거리	여가	48,470	취업자	TOBIT	3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측정방법	통행목적	n	Population	분석방법	코드
인 밀도	인구밀도(총밀도)	$\ln(\text{인구밀도})$	1일 통행거리	배웅	48,470	취업자	TOBIT	3
	인구밀도(총밀도)	$\ln(\text{인구밀도})$	1일 통행거리	교육	40,289	학생	TOBIT	3
	인구밀도(총밀도)	$\ln(\text{인구밀도})$	양	여가	40,289	학생	TOBIT	3
	인구밀도(총밀도)	$\ln(\text{인구밀도})$	양	배웅	40,289	학생	TOBIT	3
	인구밀도(총밀도)	$\ln(\text{인구밀도})$	양	교육	45,826	무직(주부, 미취학 포함)	TOBIT	3
	인구밀도(총밀도)	$\ln(\text{인구밀도})$	양	여가	45,826	무직(주부, 미취학 포함)	TOBIT	3
	인구밀도(총밀도)	$\ln(\text{인구밀도})$	1일 통행거리	배웅	45,826	무직(주부, 미취학 포함)	TOBIT	3
	고용밀도(총밀도)	$\ln(\text{고용밀도})$	1일 통행거리	통근	38,494	취업자(통근한 사람만)	다중회귀분석	3
	고용밀도(총밀도)	$\ln(\text{고용밀도})$	음	업무	48,470	취업자	TOBIT	3
	고용밀도(총밀도)	고용자수/행정구역면적	음	통근	4,056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10-80년
	고용밀도(총밀도)	고용자수/행정구역면적	음	통근	25,811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10-00년
	고용밀도(총밀도)	반경 6.4km 내 고용자수	음	통근	45,883	취업자(성인)	다중회귀분석(축차형 연립방정식)	1
	교육서비스업밀도	$\ln(\text{교육서비스업밀도})$ (원문참고: p.156)	1일 통행거리	교육	48,470	취업자	TOBIT	3
	교육서비스업밀도	$\ln(\text{교육서비스업밀도})$ (원문참고: p.156)	음	교육	40,289	학생	TOBIT	3
	교육서비스업밀도	$\ln(\text{교육서비스업밀도})$ (원문참고: p.156)	1일 통행거리	교육	45,826	무직(주부, 미취학 포함)	TOBIT	3
혼 합	서비스업밀도	$\ln(\text{서비스업밀도})$ (원문참고: p.156)	1일 통행거리	여가	48,470	취업자	TOBIT	3
	서비스업밀도	$\ln(\text{서비스업밀도})$ (원문참고: p.156)	1일 통행거리	여가	40,289	학생	TOBIT	3
	서비스업밀도	$\ln(\text{서비스업밀도})$ (원문참고: p.156)	음	여가	45,826	무직(주부, 미취학 포함)	TOBIT	3
	출발자-용도혼합	엔트로피 지수	음	통근	45,883	취업자(성인)	다중회귀분석(축차형 연립방정식)	1
	도착자-용도혼합	엔트로피 지수	음	통근	45,883	취업자(성인)	다중회귀분석(축차형 연립방정식)	1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음	통근	45,883	취업자(성인)	다중회귀분석(축차형 연립방정식)	1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음	통근	38,494	취업자(통근한 사람만)	다중회귀분석	3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음	업무	48,470	취업자	TOBIT	3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양	교육	48,470	취업자	TOBIT	3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음	여가	48,470	취업자	TOBIT	3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음	배웅	48,470	취업자	TOBIT	3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음	교육	40,289	학생	TOBIT	3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1일 통행거리	여가	40,289	학생	TOBIT	3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음	배웅	40,289	학생	TOBIT	3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양	교육	45,826	무직(주부, 미취학 포함)	TOBIT	3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음	여가	45,826	무직(주부, 미취학 포함)	TOBIT	3
접 근 성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음	배웅	45,826	무직(주부, 미취학 포함)	TOBIT	3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양	통근	62,724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8-95년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측정방법	통행목적	n	Population	분석방법	코드	
점 근 성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음	$\ln(\text{통근거리})$	통근	83,587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8-05년
	출발자-직주균형	직주균형비 상중하위 33% 더미변수화	음	$\ln(\text{통근거리})$	통근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4-90년
	출발자-직주균형	직주균형비 상중하위 33% 더미변수화	음	$\ln(\text{통근거리})$	통근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4-95년
	출발자-직주균형	직주균형비 상중하위 33% 더미변수화	음	$\ln(\text{통근거리})$	통근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4-00년
	출발자-직주균형	직주균형비 상중하위 33% 더미변수화	음	$\ln(\text{통근거리})$	통근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4-05년
	도착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양	$\ln(\text{네트워크 통근거리})$	통근	45,883	취업자(성인)	다중회귀분석(축차형 연립방정식)	1
	도착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	음	$\ln(\text{통근거리})$	통근	62,724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8-95년
혼 합	도착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	음	$\ln(\text{통근거리})$	통근	83,587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8-05년
	도착자-직주균형	직주균형비 상중하위 33% 더미변수화		$\ln(\text{통근거리})$	통근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4-90년
	도착자-직주균형	직주균형비 상중하위 33% 더미변수화	양	$\ln(\text{통근거리})$	통근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4-95년
	도착자-직주균형	직주균형비 상중하위 33% 더미변수화	양	$\ln(\text{통근거리})$	통근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4-00년
	도착자-직주균형	직주균형비 상중하위 33% 더미변수화	양	$\ln(\text{통근거리})$	통근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4-05년
	통행행태(Disaggregated): 통행시간								
	밀 도	출발자-고용밀도	반경 6.4km 내 고용자수	양	$\ln(\text{네트워크 통근거리})$	통근	45,883	취업자(성인)	다중회귀분석(축차형 연립방정식)
점 근 성	출발자-용도혼합	엔트로피 지수		$\ln(\text{네트워크 통근거리})$	통근	45,883	취업자(성인)	다중회귀분석(축차형 연립방정식)	1
	도착자-용도혼합	엔트로피 지수	음	$\ln(\text{네트워크 통근거리})$	통근	45,883	취업자(성인)	다중회귀분석(축차형 연립방정식)	1
	출발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음	$\ln(\text{네트워크 통근거리})$	통근	45,883	취업자(성인)	다중회귀분석(축차형 연립방정식)	1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음	$\ln(\text{통근시간})$	통근	62,724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8-95년
	출발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출발지까지의 거리		$\ln(\text{통근시간})$	통근	83,587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8-05년
	출발자-직주균형	고용자수/주택수: 0.8미만(참조변수), 0.8~1.2, 1.2초과로 구분	음	통근시간	통근	128,364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7
	도착자-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 $\ln(RA)$ )	양	$\ln(\text{네트워크 통근거리})$	통근	45,883	취업자(성인)	다중회귀분석(축차형 연립방정식)	1
혼 합	도착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		$\ln(\text{통근시간})$	통근	62,724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8-95년
	도착자-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		$\ln(\text{통근시간})$	통근	83,587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8-05년
	도착자-직주균형	고용자수/주택수: 0.8미만(참조변수), 0.8~1.2, 1.2초과로 구분	음	통근시간	통근	128,364	취업자	다중회귀분석	7
	직주결합입지	직장과 주거가 같은 생활권내 입지=1	음	통근시간	통근	3,626	취업자(주택근무자 제외)	다중회귀분석	6-96년
	직주결합입지	직장과 주거가 같은 생활권내 입지=1	음	통근시간	통근	13,753	취업자(주택근무자 제외)	다중회귀분석	6-02년

**도시형태 변수와 집계적  
통행패턴의 관계: 통행수단  
분담률, 평균 통행시간**

도시형태와 집계적 통행패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지역의 통행수단 분담률과 평균 통행시간 등이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도시형태 변수로는 인구밀도, 고용밀도, 사무실 밀도, 용도혼합도, 고용접근성, 도심접근성, 직주균형, 대중교통 접근성, 도로밀도, 교차로 밀도 등이 적용되었다. 대체로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 모형이 적용되었으나, 상관분석도 일부 활용되었다.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측정방법	통행목적	n	Population	분석방법	코드	
통행패턴(Aggregated): 통행수단 분담률									
밀도	인구밀도(총밀도)	음, 양, 양, 양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고용밀도(총밀도)	음, 음, 양, 무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고용밀도(총밀도)	고용자수/교통혼합도(1991년 기준)	자가용 수단분담률	통근	158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통근자	다중회귀분석	15	
	사무실 밀도	사무실연성면적/교통혼합도	자가용 수단분담률	통근	158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통근자	다중회귀분석	15	
용도혼합	과세대장 상 용도별 연성면적(1990) 활용 (원문 참고: p.74)	음	자가용 수단분담률	통근	158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통근자	다중회귀분석	15	
	용도혼합	산업복합도(1,2,3차산업 복합)(원문 참고: p.160)	양, 무, 음, 무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용도혼합	산업복합도(3차산업중분류 14개의 복합도)(원문 참고: p.160)	음, 무, 무, 무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용도혼합	산업복합도(산업8업중시자수 복합)(원문 참고: p.160)	무, 음, 무, 양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직주균형	직주균형	고용자수/주택수	음	자가용 수단분담률	통근	158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통근자	다중회귀분석	15
	직주균형	고용자수/가주자수	무, 무, 양, 음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직주균형	직주균형지수(0~1)(원문 참고: p.160)	양, 무, 무, 음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버스 접근성	버스 접근성	버스정류장 밀도(수/면적)	음, 무, 음, 양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도시철도 접근성	도시철도정류장 밀도(수/면적)	음, 음, 양, 음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도로밀도	도로밀도	연장/면적	양, 음, 음, 무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IC-UC 밀도	수/면적	무, 무, 무, 무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교차로밀도	수/도로연장	양, 음, 무, 무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4차교차로밀도	수/연장/면적	무, 양, 무, 음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4차교차로비율	%	양, 음, 무, 양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막다른 골목밀도	수/연장/면적	음, 무, 무, 양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도로기능복합도(1, 2, 4, 6차선의 복합도)	%	무, 양, 무, 무	각각 자가용, 버스, 도시철도, 비동력 수단분담률	전체통행	1,187	전체 인구	다중회귀분석	13
통행패턴(Aggregated): 평균 통행거리									
고용밀도	고용밀도(총밀도)	고용자수/교통혼합도(1991년 기준)	음	네트워크 거리(주내 통근거리는 통근시간, 수단분담률, 순단별 속도를 이용해 계산)	통근	158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통근자	다중회귀분석	14
	용도혼합	과세대장 상 용도별 연성면적(1990) 활용 (원문 참고: p.74)	음	네트워크 거리(주내 통근거리는 통근시간, 수단분담률, 순단별 속도를 이용해 계산)	통근	158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통근자	다중회귀분석	14
도심접근성	도심접근성(역)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양	직선거리	통근	63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통근자	상관분석	11
	직주균형	고용자수/주택수	음	네트워크 거리(주내 통근거리는 통근시간, 수단분담률, 순단별 속도를 이용해 계산)	통근	158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통근자	다중회귀분석	14
	직주균형(역)	직주균형지수(0에 가까울수록 균형) (원문 참고: p.171)	음	직선거리(주내 통근거리는 주내 도로망과 반경의 80%로 설정)	통근	60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통근자(산업별, 직업별 분류)	상관분석	12

주: 도시형태 변수명 옆에 '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변수의 측정(measuring)이 변수명이 가지는 본래 의미와 반대인 경우를 의미함. 예를 들어, 도심접근성을 나타내는 변수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는 그 값이 커질수록 도심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도심접근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변수의 측정 방법은 정반대임. 즉,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는 도심접근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라는 변수와의 관계를 의미함.

**도시형태 변수와 교통에너지 소비의 관계: 도로부문 석유제품 소비량, VKT, 통행량**

도시형태와 교통에너지 소비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도로부문 유류 소비량, 총통행거리(VKT), 총통행량 등의 종속변수가 활용되었다. 도시형태 변수로는 인구밀도, 주거밀도, 용도혼합도, 직주근접도, 대중교통 접근성, 도로밀도, 가로의 연결성 변수가 활용되었으며, 앞서 설명한 연구주제들과는 달리 인구 및 고용분포의 압축도 변수의 활용이 특히 눈에 띄었다. 분석방법의 경우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공간회귀분석을 적용한 연구도 있었다.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측정방법	n	분석방법	코드
교통에너지: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							
규모	총면적		양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밀도	인구밀도(총밀도)	인구/행정구역 면적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인구밀도(총밀도)	인구/행정구역 면적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 경유, LPG 소비량	54	경로분석	20
	인구밀도(순밀도)	인구/도시지역면적	음	1인당 지역기반통행에 의한 휘발유소비량 추정값	65	공간회귀분석(SEM)	16-8번 모형
	인구밀도(순밀도)	인구/시가화면적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소비량	146	다중회귀분석(Stepwise 방식)	18
	인구밀도(순밀도)	인구/대지면적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주거밀도	주택수/행정구역면적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소비량	146	다중회귀분석(Stepwise 방식)	18
	고용밀도	종사자수/행정구역면적	양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소비량	146	다중회귀분석(Stepwise 방식)	18
압축도	압축형 공간구조	시가화면적증가율/인구증가율: 1 이하를 압축형 공간구조 더미변수로 정의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소비량	146	다중회귀분석(Stepwise 방식)	18
	압축형 공간구조	시가화면적비율=도시지역면적 / 행정구역면적	음	1인당 지역기반통행에 의한 휘발유소비량 추정값	65	공간회귀분석(SEM)	16-8번 모형
	압축형 공간구조	공동주택 비율=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총주택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소비량	146	다중회귀분석(Stepwise 방식)	18
	압축형 공간구조(역)	시가화면적=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소비량	146	다중회귀분석(Stepwise 방식)	18
	압축형 공간구조(역)	단핵분산 더미 변수 (원문 참고: p.7)	양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 경유, LPG 소비량	54	경로분석	20
	인구분포의 집중도	인구밀도 상대 엔트로피 지수 (원문 참고: p.130)	음	1인당 지역기반통행에 의한 휘발유소비량 추정값	65	공간회귀분석(SEM)	16-8번 모형
	인구분포의 집중도(역)	표준편차거리 (원문참고: p.13)	양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인구분포의 집중도(역)	지니계수 (원문참고: p.13)	양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측정방법	n	분석방법	코드
압축도	고용분포의 집중도(역)	표준편차거리 (원문참고: p.13)	양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고용분포의 집중도(역)	지니계수 (원문참고: p.13)	양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혼합도	토지이용혼합도	상업+준주거/주거+상업+공업 면적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소비량	146	다중회귀분석(Stepwise 방식)	18
접근성	고용접근성	Hansen Type RA	음	1인당 지역기반통행에 의한 휘발유소비량 추정값	65	공간회귀분석(SEM)	16-8번 모형
	직주근접도	내부통행량/총통행량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소비량	146	다중회귀분석(Stepwise 방식)	18
대중 교통	버스 접근성	버스정류장 밀도(2008년 기준)=버스정류장/도시지역 면적	음	1인당 지역기반통행에 의한 휘발유소비량 추정값	65	공간회귀분석(SEM)	16-8번 모형
	도시철도 접근성	역세권 면적 비율=역세권면적/전체면적	양	1인당 지역기반통행에 의한 휘발유소비량 추정값	65	공간회귀분석(SEM)	16-8번 모형
도로 설계	도로밀도	도로연장/시가화면적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도로밀도	도로면적/차량등록대수	양	1인당 지역기반통행에 의한 휘발유소비량 추정값	65	공간회귀분석(SEM)	16-8번 모형
	2차선도로밀도	2차선 도로연장/시가화면적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4차선도로밀도	4차선 도로연장/시가화면적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6차선도로밀도	6차선 도로연장/시가화면적	음	1인당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제품 유형 언급 안 됨)	22	상관분석	19
	가로망 연결성	간선도로 연장비율=주보조간선도로연장/총도로면적		1인당 도로교통부문 휘발유소비량	146	다중회귀분석(Stepwise 방식)	18
	가로망 연결성	교차로(Node) 밀도(2007년 기준)	양	1인당 지역기반통행에 의한 휘발유소비량 추정값	65	공간회귀분석(SEM)	16-8번 모형
	교통에너지: VKT						
압축도	인구분포의 압축도	종합압축지표 (본문 참고: pp.157-160)	양	시군구별 VKT(동간 통행량과 네트워크거리의 곱을 활용)	66	상관분석	17-서울
	인구분포의 압축도	종합압축지표 (본문 참고: pp.157-160)	음	시군구별 VKT(동간 통행량과 네트워크거리의 곱을 활용)	66	상관분석	17-인천
	인구분포의 압축도	종합압축지표 (본문 참고: pp.157-160)		시군구별 VKT(동간 통행량과 네트워크거리의 곱을 활용)	66	상관분석	17-경기북부
	인구분포의 압축도	종합압축지표 (본문 참고: pp.157-160)		시군구별 VKT(동간 통행량과 네트워크거리의 곱을 활용)	66	상관분석	17-경기남부
E E							
압축도	인구분포의 압축도	종합압축지표 (본문 참고: pp.157-160)		지역 기반 총통행량	66	상관분석	17-서울
	인구분포의 압축도	종합압축지표 (본문 참고: pp.157-160)	음	지역 기반 총통행량	66	상관분석	17-인천
	인구분포의 압축도	종합압축지표 (본문 참고: pp.157-160)	양	지역 기반 총통행량	66	상관분석	17-경기북부
	인구분포의 압축도	종합압축지표 (본문 참고: pp.157-160)		지역 기반 총통행량	66	상관분석	17-경기남부

주: 도시형태변수명 옆에 “(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변수의 측정(measuring)이 변수명이 가지는 본래 의미와 반대인 경우를 의미함. 예를 들어, 도심접근성을 나타내는 변수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는 그 값이 커질수록 도심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도심접근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변수의 측정 방법은 정반대임. 즉, 종속변수와와의 관계(영향)는 도심접근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라는 변수와의 관계를 의미함.

## 도시형태 변수와 대기오염 농도의 관계: NO<sub>2</sub>, PM<sub>10</sub>, SO<sub>2</sub>, CO

도시형태와 대기오염 농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활용된 종속변수로는 지역  
별 NO<sub>2</sub>, PM<sub>10</sub>, SO<sub>2</sub>, CO 농도 등이 있다. 도시형태 변수로는 앞서 설명한 연구  
들과 마찬가지로 인구밀도, 압축도(다핵화 정도) 등의 변수가 활용되었으며, 추  
가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규모 및 토지용  
도 유형별 면적 관련 변수와 차량 통행량 관련 변수가 다수 적용되었다. 분석 방  
법은 상관분석, 경로분석, 패널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측정방법	n	분석방법	코드	
대기오염: NO <sub>2</sub> 농도							
도시 규모	총면적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인구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인구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가구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종사자수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사업체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사업체수 ln(사업체수)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건축물 총 연상면적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용도별 규모	주거용도	주거용도 연면적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주거용도	주거용도 건축물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주거용도	단독주택 세대수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주거용도	아파트 세대수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주거용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 세대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상업 및 업무용도	상업업무용도 연면적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상업 및 업무용도	상업용도 연면적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상업 및 업무용도	상업업무용도 건축물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상업 및 업무용도	상업업무용도 사업체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공업용도	공업용도 연면적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공업용도	공업지역 면적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공업용도	공업시설 규모(제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공업용도	공업용도 건축물수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용도별 규모	녹지용도	녹지+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음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녹지용도		녹지지역 면적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녹지용도		도시공원 면적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증속변수에 대한 영향	증속변수 측정방법	n	분석방법	코드
밀도	인구밀도(총밀도)	총인구/행정구역 면적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4	경로분석	20
	인구밀도(순밀도)	ln(인구밀도)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고용밀도	ln(고용밀도)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압축도	단핵분산형 공간구조	단핵분산 더미 변수 (원문 참고: p.7)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4	경로분석	20
도로 교통	교통량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교통량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차량등록대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1인당차량등록대수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도로밀도	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미기후 조절 요소	건축물 층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공동주택비율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주택건설	ln(건축허가 연면적)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주택건설	ln(건축허가 건수)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대기오염: PM10 농도							
도시 규모	인구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가구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중사자수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사업체수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용도별 규모	주거용도	주거용도 연면적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주거용도	주거용도 건축물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상업 및 업무용도	상업업무용도 연면적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상업 및 업무용도	상업업무용도 건축물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공업용도	공업용도 연면적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공업용도	공업용도 건축물수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밀도	인구밀도(총밀도)	총인구/행정구역 면적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4	경로분석
압축도	단핵분산형 공간구조	단핵분산 더미 변수 (원문 참고: p.7)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4	경로분석	20
도로 교통	교통량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차량등록대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2
대기오염: SO2 농도							
도시 규모	총면적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인구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사업체수	ln(사업체수)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건축물 총 연상면적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도시형태 변수	도시형태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종속변수 측정방법	n	분석방법	코드	
용도별 규모	주거용도	단독주택 세대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주거용도	아파트 세대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주거용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 세대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상업 및 업무용도	상업지역 면적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상업 및 업무용도	상업업무용도 사업체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공업용도	공업지역 면적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공업용도	공업시설 규모(제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녹지용도	녹지+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음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녹지용도	녹지지역 면적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녹지용도	도시공원 면적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밀도	인구밀도(순밀도)	ln(인구밀도)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고용밀도	ln(고용밀도)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도로 교통	교통량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1인당차량등록대수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도로밀도	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미기후 조절 요소	건축물 총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공동주택비율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주택건설	ln(건축허가 연면적)	양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주택건설	ln(건축허가 건수)	음	대기환경연보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330	패널분석(Parks 모형만)	23
대기오염: CO 농도							
도시 규모	인구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건축물 총 연상면적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용도별 규모	주거용도	단독주택 세대수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주거용도	아파트 세대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주거용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 세대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상업 및 업무용도	상업업무용도 사업체수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상업 및 업무용도	공업시설 규모(제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녹지용도	녹지+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음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교통	교통량	양	ISCST-3 모델을 통해 추정한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525	상관분석	21

## 도시형태의 영향 요약 (4Ds + 1C를 중심으로)

### 도시형태 변수와 통행행태의 관계

도시형태가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안의 숫자는 각각 “양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음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유의하지 않은 결과 수, 총 모형 수”를 의미한다. 이중, 2개 이상의 모형에서 합의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 해당 결과의 부호를 괄호 안에 별도로 표시했다. 기존 문헌 검토결과, 출발지 인구밀도와 도착지 고용밀도가 높을수록 자가용에 비해 대중교통이나 보행·자전거 수단의 선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통행거리 또한, 출발지 고용밀도와 음의 관계를 보여, 밀도 증가의 통행영향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 합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양성 변수의 경우, 예상과 달리 도착지의 용도혼합도가 높을수록 자가용에 비해 대중교통이나 보행·자전거 수단의 선택확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변수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의 도심접근성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또는 보행·자전거 선택확률이 증가했으나, 출발지의 고용접근성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통행거리에 대해서도 출발지 직주균형 변수와 도착지의 도심접근성 및 직주균형 변수의 영향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접근성 변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합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변수의 측정방법과 분석 모형의 설정 방식에 따라서 그 영향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변수의 경우는 대체로 대중교통 선택확률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통행시간의 경우 검토한 모형의 수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 합치된 결론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형태 및 공간구조 변수 (4Ds를 중심으로)		통행행태		
		통행수단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및 비동력 선택확률)	통행거리	통행시간
Density	출발지 인구밀도	6, 0, 2, 8 (+)	4, 2, 7, 13	
	출발지 고용밀도	1, 0, 3, 4	0, 5, 6, 11 (-)	1, 0, 0, 1
	도착지 고용밀도	8, 0, 4, 12 (+)		
Diversity	출발지 용도혼합	1, 0, 3, 4	1, 0, 0, 1	0, 0, 1, 1
	도착지 용도혼합	3, 0, 1, 4 (+)	1, 0, 0, 1	0, 1, 0, 1
Destination Accessibility	출발지 고용접근성	0, 2, 2, 4 (-)	2, 9, 1, 12	0, 1, 0, 1
	출발지 도심접근성	7, 0, 5, 12 (+)	1, 1, 0, 2	1, 0, 1, 2
	출발지 직주균형	1, 0, 0, 1	0, 4, 0, 4 (-)	0, 1, 0, 1
	도착지 고용접근성	0, 0, 4, 4	1, 0, 0, 1	1, 0, 0, 1
	도착지 도심접근성	4, 0, 0, 4 (+)	2, 0, 0, 2 (+)	0, 0, 2, 2
	도착지 직주균형	0, 1, 0, 1	3, 0, 1, 4 (+)	0, 1, 0, 1
Distance to Transit	출발지 버스접근성	2, 0, 5, 7 (+)		
	출발지 철도접근성	4, 0, 3, 7 (+)		
	도착지 버스접근성	2, 0, 5, 7 (+)		
	도착지 철도접근성	1, 0, 6, 7		

주 1: 표 안의 숫자는 각각 "양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음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유의하지 않은 결과 수, 총 모형 수"를 의미함  
주 2: 괄호안의 부호는 2개 이상의 결과가 동일한 부호를 나타냈을 때, 해당 부호를 표기한 것임. 즉, 어느 정도 합의된 결과라고 판단함  
주 3: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각 논문에서 제시된 부호의 방향을 조정하였음

### ➡ 도시형태 변수와 통행패턴의 관계

도시형태가 집계적 통행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검토한 모형의 수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 합치된 결론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검토 모형 수가 2개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도 대체로 상반된 결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치된 결론을 보이고 있는 결과 또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용도혼합도와 직주균형도가 높을수록 도시철도와 비동력 수단분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계적 통행패턴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시형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치된 결론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도시형태 및 공간구조 변수 (4Ds를 중심으로)		통행패턴				
		자가용 수단분담률	버스 수단분담률	도시철도 수단분담률	비동력 수단분담률	평균 통행거리
Density	인구밀도	0, 1, 0, 1	1, 0, 0, 1	1, 0, 0, 1	1, 0, 0, 1	
	고용밀도	1, 1, 1, 3	0, 1, 0, 1	1, 0, 0, 1	0, 0, 1, 1	0, 0, 1, 1
Diversity	용도혼합	1, 2, 1, 4	0, 1, 2, 3	0, 2, 1, 3(-)	1, 0, 2, 3	0, 1, 0, 1
Destination Accessibility	도심접근성					1, 0, 0, 1
	직주균형	1, 1, 1, 3	0, 0, 2, 2	1, 0, 1, 2	0, 2, 0, 2(-)	1, 0, 1, 2
Distance to Transit	버스접근성	0, 1, 0, 1	0, 0, 1, 1	0, 1, 0, 1	1, 0, 0, 1	
	철도접근성	0, 1, 0, 1	0, 1, 0, 1	0, 0, 1, 1	0, 1, 0, 1	

주 1: 표 안의 숫자는 각각 "양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음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유의하지 않은 결과 수, 총 모형 수"를 의미함  
주 2: 괄호안의 부호는 2개 이상의 결과가 동일한 부호를 나타냈을 때, 해당 부호를 표기한 것임. 즉, 어느 정도 합의된 결과라고 판단함  
주 3: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각 논문에서 제시된 부호의 방향을 조정하였음

#### 도시형태 변수와 교통에너지 소비의 관계

도시형태가 교통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우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유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압축도와 관련된 세 가지 변수가 모두 유류 소비량 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에너지 소비량 절감에 한 해서 만큼은 서구의 기존 이론이 국내 상황과도 매우 잘 맞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총통행거리와 통행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결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태 및 공간구조 변수 (4Ds+1C를 중심으로)		교통에너지		
		도로교통부문 석유제품 소비량	총통행거리(V,K,T)	총통행량
Density	인구밀도	0, 4, 2, 6 (-)		
	고용밀도	1, 0, 0, 1		
Diversity	용도혼합	0, 1, 0, 1		
Destination Accessibility	고용접근성	0, 1, 0, 1		
	직주균형	0, 1, 0, 1		
Distance to Transit	버스접근성	0, 1, 0, 1		
	철도접근성	1, 0, 0, 1		
Compactness	압축형 공간구조	0, 4, 1, 5 (-)		
	인구분포의 압축도	0, 3, 0, 3 (-)	1, 1, 0, 2	1, 1, 0, 2
	고용분포의 압축도	0, 2, 0, 2 (-)		

주 1: 표 안의 숫자는 각각 "양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음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유의하지 않은 결과 수, 총 모형 수"를 의미함  
주 2: 괄호안의 부호는 2개 이상의 결과가 동일한 부호를 나타냈을 때, 해당 부호를 표기한 것임. 즉, 어느 정도 합의된 결과라고 판단함  
주 3: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각 논문에서 제시된 부호의 방향을 조정하였음

### ➔ 도시형태 변수와 대기오염의 관계

도시형태가 대기오염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 모든 모형에서 밀도가 증가할수록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의 기존연구나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도시형태 및 공간구조 변수 (Density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농도			
		NO2	PM10	SO2	CO
Density	인구밀도	1, 0, 1, 2	1, 0, 0, 1	1, 0, 0, 1	
	고용밀도	1, 0, 0, 1		1, 0, 0, 1	

주 1: 표 안의 숫자는 각각 '양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음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유의하지 않은 결과 수, 총 모형 수'를 의미함

주 2: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각 논문에서 제시된 부호의 방향을 조정하였음

###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괄호안의 부호는 합치된 결과의 부호를, 그 외의 부호는 우세한 방향의 부호를 의미한다. 아래의 표와 같이, 통행형태 개선 및 교통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한 도시형태로 알려져 있는 4Ds+1C 변수의 영향은 대체로 예상과 일치하는 방향의 결과가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와 상반되는 연구결과 또한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완전히 합치된 결과를 보인 변수 유형은 5개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그 중 하나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합치된 결론을 보이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한편, 대기오염 개선 측면에서는 도시밀도의 감소가 효과적인 것으로 합치된 결론을 보인다. 그러나 밀도의 감소는 교통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적 조치이므로, 밀도 변수의 영향은 두 가지의 사회적 결과(social outcomes)에 대해 각기 상반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밀 도시개발은 통행형태 개선 및 교통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대기오염 농도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밀도 변수의 순 효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합치된 이론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대중교통 선택 확률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압축도가 높을수록 교통에너지 소비가 절감된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도시형태 변수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용도혼합과 접근성 관련 지표는 통행형태 개선 및 교통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여전히 상반된 효과를 보이고 있어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도시형태 및 공간구조 변수 (4Ds+1C를 중심으로)		교통에너지 절감 (통행행태 · 패턴 개선 포함)		대기오염 개선	
Density	출발지 인구밀도	16, 4, 11, 31	+	0, 3, 1, 4	(-)
	출발지 고용밀도	8, 4, 12, 24	+	0, 2, 0, 2	(-)
	도착지 고용밀도	8, 0, 4, 12	(+)		
	밀도 합계	32, 8, 27, 67	+	0, 5, 1, 6	(-)
Diversity	출발지 용도혼합	6, 5, 10, 21	+		
	도착지 용도혼합	4, 1, 1, 6	+		
	용도혼합 합계	10, 6, 11, 27	+		
Destination Accessibility	출발지 고용접근성	11, 4, 4, 19	+		
	출발지 도심접근성	8, 2, 6, 16	+		
	출발지 직주균형	9, 4, 5, 18	+		
	도착지 고용접근성	0, 2, 4, 6	(-)		
	도착지 도심접근성	4, 2, 2, 8	+		
	도착지 직주균형	1, 4, 1, 6	-		
	접근성 합계	33, 18, 22, 73	+		
Distance to Transit	출발지 버스접근성	5, 1, 6, 12	+		
	출발지 철도접근성	6, 2, 4, 12	+		
	도착지 버스접근성	2, 0, 5, 7	(+)		
	도착지 철도접근성	1, 0, 6, 7	+		
	대중교통 합계	14, 3, 21, 38	+		
Compactness	압축형 공간구조	4, 0, 1, 5	(+)		
	인구분포의 압축도	5, 2, 0, 7	+		
	고용분포의 압축도	2, 0, 0, 2	(+)		
	압축도 합계	11, 2, 1, 14	+		
합계		100, 37, 82, 219		0, 10, 2, 12	(-)

주 1: 표 안의 숫자는 각각 "양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음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 수, 유의하지 않은 결과 수, 총 모형 수"를 의미함

주 2: 괄호안의 부호는 2개 이상의 결과가 동일할 경우 해당 부호를 표기한 것이며, 그 외의 부호는 우세한 방향을 의미함

주 3: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각 논문에서 제시된 부호의 방향을 조정하였음

지금까지 살펴본 실증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변수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 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도시계획 및 도시 설계 실무에 있어서도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결과는 본고를 통해 검토한 23개의 실증연구만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며, 아직까지 국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합치된 결론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항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Density	통행 출발지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선택 확률 증가 통행 도착지의 고용밀도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선택 확률 증가 통행 도착지의 고용밀도가 높을수록 통행거리 감소 통행권의 인구밀도 및 고용밀도가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부담률 증가 통행권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교통에너지 소비 감소	지역의 인구밀도 및 고용밀도가 높을수록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 증가
Diversity	통행 도착지의 용도혼합도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선택 확률 증가	통행권의 용도혼합도가 높을수록 도시철도 수단 부담률 감소
Destination Accessibility	통행 출발지 또는 통행 도착지의 도심접근성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선택확률 증가 통행 출발지의 직주균형비가 높을수록 통행거리 감소	통행 출발지의 고용접근성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선택확률 증가 통행 도착지의 도심접근성과 직주균형비가 높을수록 통행거리 증가 통행권의 직주균형비가 높을수록 비동력 수단 부담률 감소
Distance to Transit	통행 출발지의 버스 접근성 또는 도시철도 접근성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선택확률 증가 통행 도착지의 버스 접근성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선택확률 증가	
Compactness	통행권의 공간구조가 압축적일수록 교통에너지 감소 통행권의 인구분포 또는 고용분포가 압축적일수록 교통에너지 감소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Acrotower Office,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